

제16권 제2호

2010년 3, 4월호

# 진리의 기둥과 터

*Pillar and Ground of the Truth*

변함없는 기념일  
깨어진 고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

# 봄날의 메시지

## 책을 열며

글\_ 현 종환

올해도 어김없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와 산과 들에는 꽃이 피고, 공중에는 새들이 노래를 부르니, 우리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온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계(四季)의 순환이다!

아지랑이 아물거리며 햇별이 따사한 봄날, 양지 쪽에 앉아 잠시 잠이 들어 한바탕 행복한 꿈을 꾸다 깨어나 허무함을 느

끼는 것을 가리켜 “인생은 일장춘몽”(一場春夢)이라고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로병사(生老病死) 즉,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고 배우고 직업을 선택하여 결혼하여 자녀를 낳다가 늙고 병들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에 3:33)라고 하셨으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전 3:11)다고 하신 것은 사람으로 생에 대한 애착만 가지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조건 아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 분명하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17:3)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잘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4, 9-12)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히 2:14-15)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분을 떠나 행복을 꿈꾸지만 참빛을 떠나면 어둠 속에서 넘어질 뿐이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일장춘몽의 헛된 영화를 구할 뿐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 평생 수고해도 얻을 것이라고는 없게 되어 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없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력으로는 행복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이다.

하늘로부터 보내오는 봄날의 메시지를 들어 보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거이니”(요 6:40)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 2)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생명의 근원되신 창조주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생이 죄를 범하여 대면하여 교제하던 친구가 단절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아닌가! 그분은 우리에게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사 27:5)고 말씀하신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사 1:18-19)

이 얼마나 놀라운 봄날처럼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인가! 봄기운이 우리의 기대를 거스리지 않고 어김없이 찾아와 대지를 따뜻하게 감싸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약속의 메시지가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의 겨울을 따뜻한 봄날로 바꾸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한다. ◇

# 진리의 기둥과 터

Pillar and Ground of the Truth

로마서 14장	○ 하나님은 유일하신 심판장이심 .....	4
부 미 의  보 물	○ 제 19과 변함없는 기념일 .....	9
	○ 제 20과 깨어진 고리 .....	12
	○ 제 21과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	15
기별연구	○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 1 .....	18
인류의 역사는 절제와부절제의대쟁투	○ 2.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下) .....	22
2010년 기도력	○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은사들 .....	31

“하나님께서 세상을으로부터 한 백성을 높이 들리운 영원한 진리의 토대,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신다. 그들은 의견이 일치할 것이다. 곧 이 사람은 이것을, 저 사람은 전적으로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앙과 견해를 견지하고, 각자가 몸으로부터 독립하여 움직이는 불일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두신 다양한 은사들과 다스림을 통해서 그들은 모두 신앙의 일치에 이를 것이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29

## 진리의 기둥과 터

격월간 정기 간행물  
2010년 3-4월호  
제16권 제2호, 통권136호  
2010년 2월 16일 인쇄  
2010년 2월 17일 발행  
제철일 재림교  
개혁운동 한국합회  
편집인/출판위원회  
인쇄인/서진인쇄사  
발행처/의성사

www.sdarm.or.kr

경북 김천시 구성면 송죽2리 32번지  
전화 : (054)435-1843  
팩스 : (054)434-4521  
인터넷 전화 : 070-8236-1843  
  
(농 협) 737032-56-140849 현종환  
(우체국) 700377-01-001881 서 회  
  
구독료 : 1년 20,000원

# 하나님은 유일하신 심판장이심

E. J. 와그너

로마서 14장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의 실제적인 교훈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교훈들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은 없으므로 앞서의 교훈들을 되새길 필요는 없다. 이미 배운 교훈들처럼 로마서 14장도 교회에게 언급된 것이며 주를 섬긴다고 공언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롬 14:16은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은 교회의 교인들이 피차에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 한분의 공통된 주님의 종들: 롬 14:1-11

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2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4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쉰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을 때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5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6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었도다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10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 기록되었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학교:** 그리스도의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완전을 추구하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주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다음과 같이 초청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 11:28, 29). 주께서는 당신께 오도록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 6:37)고 말씀하신다. 저명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하며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

믿음이 매우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를 거절하지는 않으신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남을 언급했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살후 1:3). 하나님은 각 사람이 그분을 충분히 신뢰해야 할 만큼 인자하시지만 그분이 그만큼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그들이 의심한다고 하여 그들로부터 돌아서지는 않으신다. 이것이 완전한 믿음을 계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매우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이다.

**생도들은 선생이 아님:** 학교에 다닌다고 말하는 자가 생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직 어떤 특별한 학생들만 다니도록 허락하는 전문학교들이 있다. 만일 사회적으로 하위 계층에 속하는 재산도 없고 신분도 낮은 자가 들어가려고 한다면 소란할 것이다. 학생들 자신이 그런 신입생이 들어오는 것을 강하게 반대할 것이며 선생님들도 그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학교들은 그리스도의 학교들은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롬 2:11). 주께서는 가난하고 빈핍하며 연약한 자들을 초청하신다. 입학할 허락하는 것은 생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주께서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계 22:17)고 말씀하시며 그분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신다.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할 오직 하나의 필요 조건은 주께로부터 배우기를 자원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으시고 가르치실 것이다. (요 7:17). 어떤 다른 표준을 세우는 자마다 자신을 하나님 위에 세우는 자이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를 거절할 권리가 없다.

**주인과 종:**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마 23:8, 10)고 말씀하셨다. 각 생도나 종을 위해 일을 맡기는 자는 선생이나 주인이다. 종이 그의 상급을 구하는 것은 주인에게서이다. 그러므로 오직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롬 14:4). 그대는 그가 성취한 것에 대한 보상을 줄 능력이 없다면 그대는 그가 실패한 것을 판단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 재판장이심”:**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시 75:7). “대저 여호와께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께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께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

하시 것임이니라”(사 33:22).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약 4:12). 구원하고 멸망시킬 권세는 재판장의 권리이다. 재판할 권세가 없는 자가 심판을 내린다면 그것은 바로 같은 흉내 내기에 불과하다. 어리석은 일을 하는 자는 이런 일을 한다.

**법왕권의 정신:** 사도 바울은 배도하는 자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고 묘사했다(살후 2:3, 4). 단 7:25에는 동일한 인물을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묘사했다.

자신을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거나 그 율법 위에 세우는 자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고 그분의 권세를 가장 모독적으로 찬탈하는 자이다. 이와 같은 참람된 자의 종말은 이렇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살후 2:8).

**이제 약 4:11을 읽어보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이것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적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며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자신을 죄의 자리에 두고 “저 불법의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저 불법의 사람의 샅을 받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여기에 우리 모두가 잠시 생각해야 할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인들로서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한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어야 함을 배웠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이에 무관심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않고 이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계명에 존경심을 갖고 있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거칠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이런 행동은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우리는 그렇게 행할 권리가 없고 우리는 다만 종들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생애 - 롬 14:14-23

14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15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16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20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21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22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수많은 오류들이 성경을 무관심하게 읽거나, 성급한 결론을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말씀을 곡해하므로 생기게 된다. 더 많은 문제들은 신중히 생각지 않고 적합한 사상의 결핍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읽을까를 항상 조심해야 한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주제를 고찰한다면 관련된 말씀들을 곡해하지 않을 것이다. 롬 14장 서두에서 제시된 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이 없는 어떤 사람의 경우이며 14장 전체에 관계된 분명한 사상은 먹거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정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문제를 적게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한 사상이 만연되고 있는데 한 때는 음식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 지금은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라도 복음으로 먹으면 정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지 짐승이나 파충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모세 당시 독이 있는 풀들이 있었으며 이런 식물들은 지금도 독이 있다. 복음이 모든 것을 먹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은 어떤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고양이나 개나 나비 같은 유충류나 거미나 파리와 동과 같은 것을 먹는 것에 혐오감을 느낄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런 음식 문제 때문에 서로 화목시키는 대신에 그와는 정반대로 그들이 음식으로 사용하는 가장 타당한 야만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이런 음식은 타락의 징조와 원인이 된다. 음식의 선택에 있어서 빛은 조심성을 준다.

이제 사도 바울이나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것도 좋으며 선한 일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비록 대다수의 사람들이 먹거나 마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음식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음식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먹을 것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먹도록 주신 것을 먹을 때에 그 양심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딤후 4:3).

그러므로 사도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은 오물(더러운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먹기에 적합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그가 지적한 분명한 말이다. 그러나 우상에게 드린 어떤 음식을 먹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우상숭배자들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런 음식을 먹기를 두려워한다. 고린도전서 8장은 이 문제를 명백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서 14장과 비교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날들에 대한 문제에도 빛을 준다. 사도는 먹을 만한 음식에 관하여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거룩하게 하지 않은 날들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도 분명한 해석을 준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롬 14:17).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군림하고 계신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 2:6)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 당신께서 만물의 후사(상속자)로 임명하신 아들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더 읽어보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네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히 1:8, 9).

홀은 권세의 상징이다. 그리스도의 홀은 의의 홀이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의 권세는 의이다. 그는 의로 통치한다. 땅에서의 그의 생애는 의를 완전히 나타낸 생애였다. 그래서 그가 그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의 나라를 다스린다. 그의 생명을 소유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나라의 신민들이다. 그리스도의 생명 외에 아무 것도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권의 휘장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으로 왕으로 임명되셨는가? 히 1:9(하단)에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즐거움 혹은 희락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필요한 요소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며 희락의 나라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은 기쁨으로 찬양해야 한다.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차가운 태양”과 같다. 태양은 비취는 모든 곳에 따뜻함을 전달할 목적으로 존재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의 특성의 하나로서 평강과 희락을 발산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이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희락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그러하기 때문에 또한 희락의 나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롬 14:18, 19).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긴다. 왜 그러한가? 그리스도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봉사를 받으시며 인간들은 그 사실을 인정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봉사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 다니엘의 원수들

은 그의 생애의 불의함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것 외에는 그의 생애의 불의함을 찾아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그의 하나님의 율법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순종한 그 진술이 그를 충성된 사람이 되게 했다.

**이타심:**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평강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기심은 항상 전쟁의 원인이 되며 이기심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항상 그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무아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강을 헤칠 염려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 자신의 길을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임은 물론 의의 나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며 이는 “모든 불의가 죄” (요일 5:17)이고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 (요일 3:4)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그 자신의 열망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어떤 부분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평강을 준다. 이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회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 119:165).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사 48:18).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불쾌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의 어떤 부분이라도 버리는 자는 평강을 위하는 일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그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항하여 반역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단순히 인간의 의견으로 취급하는 것을 볼 때 그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은 이에 관하여 어떤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그가 원한다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날들 중 한 날이 아니다. 의무로서 지켜야만 할 것들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원하면 행할 권리가 있어서 행하지만 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음식을 손가락으로 먹을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 행위가 그의 친구를 불쾌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스도의 법은 만일 주의 깊이 조심한다면 인간을 완전히 예의 바르게 만든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의미에 있어서 신사이다.

허락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어떤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의 예의는 로마서 14장에서 언급된 대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그의 연약한 형제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한다. 비록 그들이 이성의 결핍으로 이런 양심의 가책을 거칠게 대한다면 보다 관대한 마음으로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를 낙담시키는 길도 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롬 14:21).

이처럼 로마서 14장은 안식일이나 혹은 하나님의 계명에 속한 것 대신에 그리스도인의 예의범절에 대한 순수한 하나의 교훈이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돌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양심의 제한:**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롬 14:22). 믿음과 양심은 개인적인 것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어

떤 사람도 두 사람이 가져야 할 만큼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그들이 필요한 믿음보다 더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더 많은 의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믿음보다 더 많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좋을 지라도 어떤 사람을 구원하도록 충당할 수는 없다.

우리는 오늘날 공적인 양심에 관하여 많이 듣고 있다. 우리는 때때로 한 사람의 양심이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유린된다는 말을 듣는다. 양심도 믿음과 같으며 아무도 두 사람을 위할 만큼 충분한 양심을 가질 수는 없다. 자신의 양심이 그 자신을 위하고 또한 그의 의가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양심에 대한 이기적인 고집으로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양심에 대한 이런 잘못된 관념이 종교라는 미명아래 행해져 왔던 모든 두려운 핍박을 초래했던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오직 그 사람들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것임을 이해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양심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강요할 자유가 없으며 그리스도의 나라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양심을 행사하는 것을 삼가야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빨리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그의 연약한 형제를 도와야 하며 보다 천천히 걸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바른 길에서 돌아서서는 안 된다. ◇



## 제 19 과

# 변함없는 기념일

우리는 지나간 교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약속 일자”라는 것에 관하여 배웠다. 우리는 안식일을 “사랑에서 시작된 약속 일자”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땅을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그의 은혜 그분의 업적과 그의 구원하는 능력을 중재 하기 위하여 따로 떼어 놓은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로써 주어졌다. 우리 인성으로는 우리가 생애의 세속적 사물을 위하여 실행할 때에 분투하면서 우리는 일주일에 6일 동안 일해야 한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그분께서 만물을 만드신 것을 특별히 생각 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하루가 필요한 것을 아셨던 것이다.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기록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 2:1-3.

여러분은 또한 안식일이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한 표징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될 것이다. 기억에 앞서 어떤 사물 즉 그리스도의 창조력은 또한 영적 능력과 용기를 새롭게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숨씨를 그의 창조물 가운데서 바라 보는 때에 우리는 이같은 창조력이 또한 우리의 자유라는 사실로 용기와 새 희망을 받게 된다. 만일 우리가 원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이 능력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창조 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괴롭히는 모든 죄악을 정복할 승리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움이 되는 지식을 사람에게 가져오기 위하여 안식일이 계획된 것이다. 이번 과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안식일에 관하여 더욱 배우게 될 것이다.

### ‘주의 날’

Q. 어느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사 58:13.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막 2:28.

Q. 주일 중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제칠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출 20:10.

### “예수님과 안식일”

Q. 안식일을 존경하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규례는 어떠하였는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눅 4:16.

Q.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을 때 그리고 그는 자신이 승천하신지 오랜 후에 안식일의 중대성을 인정하셨는가?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 24:20.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 4년반 즉 A. D. 66년 10월 늦게까지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안식일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여

전히 신성한 한 날로 중요시 되었다는 증거이다.

Q.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은 안식일을 하나의 거룩한 날로 준수 하였는가?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눅 23:56. (여기 본문에 언급된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8-11절에 나타나 있음)

**‘바울과 안식일’**

Q. 바울과 바나바는 언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였는가?

“저희가 벡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행 13:14.

Q. 언제 빌립보에서 종교 의식이 있었는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행 16:13.

Q. 바울은 안식일의 중대함을 인정하여 그리스도의 모본을 어떻게 따랐는가?

“데살로니가의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행 17:1, 2.

이같이 우리는 안식일에 종교 예식에 참석하여 말씀을 전파 하는 것이 바울의 규례였었다는 사실을 이해 할 수 있다.

Q.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주일 중 일하는 날들을 어떻게 사용하였으며 그는 안식일에 무엇을 하였는가?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행 13:3, 4.

바울은 주일 중 엿새 동안 장막 만드는 업에 충실하였다. 그러나 안식일 곧 제칠일에는 회장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였으며 그 기록은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 하였다고 말해 주고 있다.

**새 땅에서의 안식일**

Q. 구속받은 무리들은 새로 창조된 땅에서 경배하기 위

하여 어느 날에 같이 모일 것인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사 66:22, 23.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은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 안식일에 쉬셨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을’ 때에(창 2:1). 창조주와 온 하늘의 거민들은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 하였었느니라’ 욥 38:7.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 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행 3:21). 올 것인데 그 때에도 예수께서 오셉의 무덤 속에서 쉬시던 날인 창조의 안식일이 역시 휴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연합하여 ‘매 안식일에’ (사 66:23). 찬양을 드리고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시대의 소망, 308, 309.

여기에 잘 알려진 찬미의 가사들은 주의 사랑에서 비롯된 날 곧 그분의 참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기쁨과 축복을 매우 아름답게 나타내 보여 주고 있다.

258장

잊지 말라 성일

1. 잊지 말라 성일 주 축복하신 날 한주일 중에 가장 복되고 좋은 날 심신을 쉬게 하고 참 기쁨 주는 날 그 광채 아름답게 온 세상 비추네

2. 주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날에 주께 경배 또 찬송드리세 주 예수 따라가며 그 뜻을 행하면 영원히 솟는 생수 우리에게 주시리

3. 즐겁도다 이 날 곧 황금의 시간 다 주께 감사 찬송 큰 영광 돌리세 오 사랑 크신 구주 각 사람 맘속에 거하시라고 하신 그 약속 귀하다

후렴. 어서 오라 안식일 참 거룩한 이 날 반갑도다 이 날은 참 복된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지상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안식일이 저들을 구별하는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의 안식일로 들어 가는 때에 저들을 구별하는 표징이 된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표징이요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하는 한 표징이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과 범죄자들과를 구별하여 준다” -교회증언 6권, 349.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력과 구속하는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 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것처럼 기쁨이 될 것이다. 저희는 그분 안에서 즐거워 할 것이다. 안식일은 저희들에게 구속에 있어서 그의 강하신 능력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써 창조 사업을 지적하여 주고 있다. 안식일은 에덴의 잃어버린 바 된 평화를 생각나게 하는 반면 구세주를 통하여 평화가 회복된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은 사실상 구세주의 초청을 반복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연합시키는 황금 고리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33.

“안식일은 우리의 생각을 천연계에 집중시키며 새의 노래와 나무의 살랑거리는 소리 가운데서 그리고 바다의 음악(파도) 속에서 우리를 창조주와의 교제로 이끌어 들인다. 우리는 아직도 어느 시원한 한 날 에덴에서 아담과 이야기 하신 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가 천연계 가운데서 그의 능력을 볼 때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은 영혼에게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엿새를 주셨으나 그분의 휴식의 날은 신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주시고 일상 생활의 모든 수고로부터 자유를 주셨다. 이와같이 안식일을 따로 구별하여 놓으시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기념물을 세상에 주셨다. 그는 일곱 중에서 어떤 날 혹은 아무 날이나 따로 구별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하루 곧 일곱째 날을 따로 구별 하셨다. 또한 안식일을 준수하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상께서, 32.

“안식일-오! 그날을 주일 중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날로 만들라.” -상께서, 36.

“금요일에 안식일의 예비를 마치게 하라. 모든 의복이 다 준비됐는지 음식준비가 다 됐는지 알아보라. 구두도 닦고 목욕도 하도록 하라. 이것은 능히 할 수 있다. 그대가 그것을 규례로 삼으면 이를 행할 수 있다. 안식일을 옷을 꿰매는 일이나 음식을 요리하는 일이나 오락을 구하는 일이나 혹은 다른 세속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세속적인 사무를 견어치우고 모든 세상 신문들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치우라.” -권면, 469.

### 보배함

“안식일에 대한 의무가 제시되면 많은 사람들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언제나 일요일을 지켜왔다. 우리의 조상들도 그날을 지켰다. 경건하고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지키다가 행복하게 죽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옳은 일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옳은 일이다. 그런데 이 새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조화가 깨어져 그들에게 아무런 감화도 줄 수 없게 될 것이다. 제철일을 지키는 하나의 작은 단체가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 온 세계를 대항하여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은 논법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가납하심을 받았는데 그 자손들이 그와 동일한 길을 따름으로 구원을 얻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루터 당시의 법왕교도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의 신앙을 가지고 죽었으므로 그 신앙이야말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와 같은 이론은 종교적 신앙과 행위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것임이 입증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여러 세기 동안에 확립된 교회 전반의 관습이요 교리라고 주장했다. 455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안식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더욱 오래된 일이요 더욱 널리 보급되었던 것이며, 세상 그 자체 만큼 오래된 것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다같이 인정한 것이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고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할 그 때에 안식일의 기초도 놓였다(욥 38:6, 7; 창 2:1~3 참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도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사람의 권위로 제정되거나 사람의 전통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그분의 영원한 말씀으로 명령되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54, 455 ◇

## 제 20 과

# 깨어진 고리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의 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에 비교하여 더 강하지 못하다”는 격언을 자주 들으셨을 것이다. 이 격언은 참된 진실이다. 이상하게도 많은 신실한 사람들과 종교 교사들까지도 이 깨어진 고리에 대한 이유를 의식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물론 주일 중 첫날을 지키는 습관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맨 처음 창조하실 때 따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제칠일 대신 안식일로 부르고 있다. 지난 교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지키셨으며 그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부활 후 거의 사십년 후에 일어났어야 했던 사건 곧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저희가 도망 하지 않도록 기도 하여야 할 것을 말씀 하셨다는 사실을 배웠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다. 우리는 본래의 안식일 보다는 어떤 다른 날이 지켜져야 한다는 기록을 성경 아무 곳에서도 본 일이 없다. 그러므로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를 알기 위하여 성경과 역사의 증언의 충고를 구하여 보자.

### 예언된 변화가 시도됨

Q. 선지자 다니엘은 어떤 세력이 일어나 무엇을 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는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단 7:25.

Q.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바울은 예언 하였는가? 이러한 배도의 세력은 얼마동안 지속 되어야 하였는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살후 2:3-4.

우리는 사회와 교회의 역사에 대한 증거에서 오직 한가지 능력만이 이 설명서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계시가 된 이상 그의 율법에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가장 높은 정도에 있어서 하나님 보다도 자신을 높게 되는 것이다.

###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무너진 곳”

Q. 무슨 권세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예배의 날에 대한 변화를 일으켰는가?

우리는 변화의 근원을 명백히 지적하는 믿을만한 천주교의 자료집들로부터 인용 하여 보려 한다.

천주교의 밀로, 1893년 9월 23일 “로마 천주교회는 개신교(프로테스탄트)가 존재하기 전 천여년 동안 그의 신성한 사명의 권세로 안식일을 토요일로부터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개역, 베드로 기에르만, 개종자의 교리문답. (로마 천주교) 50페이지.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질문들과 답들을 얻을 수가 있다.

“질문—어느 것이 안식일인가?

“답—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질문—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준수하고 있는가?

“답—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준수하고 있다. 왜냐하면 로마(카톨릭)천주교회는 라오디게아 총회에서(A. D. 336년)의식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느 개인에게 수치를 가져다 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주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그 문제에 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갖기 위하여 그리스도인 교회의 풍습 속에 치명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이다.

Q.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니므롯 시대에 이후에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이 그리스도인 교회에 스며 들어 왔다. 처음에는 일요일이 휴양의 날로 제정 되었었으며 안식일은 백성들을 위하여 의식과 많은 엄격한 요구의 날로 제정되었다. 얼마동안 양쪽 두날은 지켜졌다. 결국에는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는 A. D. 321년 처음 알려진 일요일 법령을 통과 시켰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예배의 일자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겨 놓았다.

Q.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열망하는 자들의 태도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행 5:29.

### ‘하나님의 인과 배도의 표’

Q. 땅위에 멸망의 바람을 놓기 바로 전에 무슨 특별한 사업이 일어나야 하는가?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망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 7:1-3.

Q.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인을 발견하는가?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중 제자중에 봉함하라.” 사 8:16.

여러분은 18과에서 오직 넷째 계명만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 계명은 그를(이름)으로는 여호와로(직함)으로는 창조주로 그리고 (그분의 영토)로는 하늘과 땅이라고 확증하고 있다.

Q. 로마 교황은 저들의 세력에 대한 권세의 한가지 증거로써 무엇을 세웠는가?

우리는 다음의 대답에서 질문을 들어 보기로 하자.

“답—안식일을 일요일로 번개시키는 바로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개신 교회는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였다.” — 헨리 튜버 바일, 기독교도 신조의 요약(1833년 허가) 58 쪽.

“물론 천주교회는 그 번개가 자기들의 행위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영적이거나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의 참여 없이는 아무 일도 행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주장은 바른바 없다. 그리고 그 행위는 종교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의 교권과 권세의 표이다.” — 천주교 일로, 1893년 9월 23일

Q. 지구의 역사가 마치는 때에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지자는 예언하였는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계 13:16.

이 표는 17절에서는 “짐승의 … 표”라고 부르며 이 표는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과 대조 된다.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이라면 참 안식일의 적수는 세력과 권세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권세로 말미암아 실시 되어온 날인 것이다.

### ‘우리의 결단’

Q. 우리는 마음에 무슨 지극히 중요한 원칙들을 간직해야 하며 무엇이 직접적으로 안식일 문제에 관계하게 되는가?

“너희 자신을 중으로 드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롬 6:16.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마 12:30.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중간의 위치를 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우리가 그를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의 날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어떤 다른 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교과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친히 신성하게 하시고 지키신 날을 지키므로써 우리가 받게 될 축복에 관하여 더욱 자세히 연구하게 될 것이다.

Q.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에 관하여 어떤 영광스러운 이상을 보았는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 14:1.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계 15:2.

저희들의 이마에나 혹은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은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유리바다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그대들은 그곳에 있기를 원치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구원하는 능력을 통하여 그대들은 그곳에 거할 수가 있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05.

“그분의 거룩한 날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의 택하신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계시다는 표징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하나의 서약이다. 하나님의 정부의 표징을 받아 들이는 모든 영혼은 자신을 영원한 언약 곧 신성 아래 두는 것이다. 그는 순종이라는 황금 사슬로 자신을 묶는다. 그리하여 모든 고리마다 약속이다.” (엘렌 G. 화이트)

### 보배함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롬 1:20

“오늘날 우리가 쳐다보는 천연계의 만물은 다만 에덴 동산의 영광을 희미하게 보여 주는 데 불과하다. 죄는 지상의 아름다움을 훼손시켜 버렸다. 만물 가운데서 죄악이 나타낸 흔적들을 볼 수 있다. 그렇지라도 아름다운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천연계는 능력이 무한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비록 훼손된 상태에 있을지라도, 만물은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준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자비의 증거를 볼 수 있다.

웅장한 뇌성의 장엄한 진동과 태고적부터 끊임없이 들려오는 대양의 파도 소리에서, 숲 속을 아름다운 음률로 장식하는 즐거운 소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천연계의 음성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놀라운 색깔과 색조로써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는가 하면, 또한 조화를 이루어 변화하는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영원히 변함없는 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 준다. 햇빛을 받아 푸른 나래를 펼치는 나무들과, 우아한 미를 간직하고 있는 꽃들은 그들의 창조주를 가리켜준다. 갈색 대지 위에 깔려 있는 싱그러운 풀들은 당신의 가장 미천한 피조물들을 돌봐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말해 준다. 바다의 동굴들과 땅의 심연은 그분의 보화들을 드러내 준다. 진주를 바닷속에, 자수정과 귀갑랍석을 바닷속에 두신 하나님은 미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생명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려준다. 땅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하늘을 밝혀주는 밝은 광채와 미는 하나님을 나타낸다.” -가정과 건강, 319.

◇

## 제 21 과

#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지난 세 과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구별하신 최초의 두 신성한 제도 중의 하나에 대해서 공부하였다. 이 두 제도는 안식일과 결혼 제도이다. 마지막 때에 이 두 제도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저들의 바른 위치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에 온전히 들어오 시기를 허락하기까지는 안식일이나 다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언급해 두고 싶다. 인간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원수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새 마음 곧 새 정신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의 율법을 사랑할 것이다. 우리는 영감받은 시인이 말한 바와 같이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시 40:8)하는 말씀을 경험 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허용할 때에,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의 율법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될 것이다. 한 저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글로 표현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범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의의 원칙을 드러내신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성적인 욕망이나 경향, 또는 죄로 이끄는 유혹을 초월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므로 우리에게 율법의 교훈을 주셔서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 *시대의 소망*, 308.

###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을 거룩히 지키

Q.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은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롬 1:20(시 111:4; 92:4, 5; 고후 4:6; 사 40:18-29(참조))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 그의 창조 사업은 타락한 인간을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우리가 천연계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능력을 볼 때에 우리는 위안을 받게 된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은 또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안식일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이끌어 간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에 받게 한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은 계획을 예비하신 것에 대하여 언제나 감사해야 할 것이다.

Q. 넷째 계명은 다른 계명과 무엇이 다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출 20:8.

다른 열 계명은 모두 “너는 ... 하지 말찌니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넷째 계명은 “기억 하라”는 말로 시작하는 점

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첫째로 생각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온 주일을 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사업과 일을 조절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환경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모든 환경을 조정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Q. 성경에 의하면 언제 안식일이 시작되는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창 1:5, 8, 13, 19, 23, 31)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찌니라.” 렘 23:32.

저녁은 “해질 때”에 시작된다. (신 16:6; 막 1:32; 왕상 22:35, 36; 신 23:11; 대하 18:34) 성경의 계산에 따르면 하루는 언제든지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였다. 이것은 안식일이 제정되었을 때에나 오늘날이나 변함이 없다.

Q.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날에 무엇을 하지 않도록 금하시는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 20:10.

###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감’

하나님은 사람을 제멋대로 내버려 둔다면, 일주일 내내 일하여 저희의 창조주를 온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생의 근심 가운데 너무 말려들지 않도록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세워 놓으셨다. 우리의 생활비를 버는 일은 어떤 일이건 간에 이 날에는 금지되어 있다. 이것은 물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문안에 유하는 손님들도 해당 한다.

Q. 여호와와 안식일 지키는 참 원칙들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 까지인가?

“만일 안식일에 네 밭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사 58:13, 14.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기록되어 있으면(히 8:10) 이 경험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진실로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일 중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날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일 중 어느 다른 날보다도 그분과 더욱 밀접한 교제를 갖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 날에 우리 자신의 길과 오락과 사업을 떠나서 우리의 생애와 관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안식일을 무거운 짐으로 보이게 하여 안식일을 비난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사단의 희망하는 바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중생)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이 행복과 능력의 하루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Q. 안식일은 공중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제정되었는가?

“옛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쉼 안식일이니 성회라” 레 23:3.

성회는 “집회를 위하여 함께 모인다”는 의미이다.

Q. 어느 날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특별한 날인가?

“이날(여섯째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눅 23:54

“제 육 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 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굶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출 16:22, 23

일 주일 내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안식일을 간직하여야 하지만 특별히 금요일은 안식일 준비를 끝마치는 날이다. 요리, 목욕, 구두 닦는 일, 집 청소와 모든 세속적인 서류 잡지들을 치우는 일을 해가지기 전에 마치고 귀중한 안식일 시간을 맞이하기 위하여 온 가족이 연합하여 찬미와 기도를 드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Q.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가?

안식일은 그저 활동하지 않고 무료하게 지내는 날이 되  
거나 일주일간 충분히 쉬지 못했던 모든 수면을 충당하  
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날은 예배드리고 건  
강적인 휴식을 취하고 거룩한 활동을 위하여 구별되어 있  
는 것이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주일  
중 어떤 다른 날에 하는 것 보다도 더욱 큰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창조와 구속의 이야기도 가르쳐  
주고 어린이들이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가운데로 데리고 나갈 수 있  
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어느 다른 날 보다도 기도를 드리  
며 하나님과 이야기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는 날이다. 우  
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  
이 오실 것이다. 우리는 안식일이 주의 날이라는 것을 항  
상 기억하자. 그러면 그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축복  
을 주시게 위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우리가 참  
안식일을 지키는 기쁨에 들어가는 때에 여호와께서는 각  
자가 저희들의 생애에서 복스러운 경험을 실현할 수 있도  
록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이 진리를 항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자  
하심이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신 사실이  
우리가 주를 경배해야 할 이유로 계속되는 동안에는 안식  
일도 또한 그 증거와 기념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만일 인  
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에게 집중되어 주께서 과연 존경과 예배의  
대상(對象)이 되셨을 것이요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나  
회의론자가 하나라도 생겨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안식  
일 준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  
나님께서 대한 충성의 한 표징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  
배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는 이 기별은 특별히 인류  
에게 넷째 계명을 지키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 각 시대의  
대쟁투, 212

“안식일 준수에는 큰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기를 바  
라신다. 안식일이 제정되던 때 그 곳에는 기쁨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만물을 “심히  
좋”다(창 1:31)고 선언하셨다. 하늘과 땅은 기쁨으로 찬만

하게 되었다.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  
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욥 38:7).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役事)를 훼손시켰을지  
라도 전능하시고 온유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증거로서 여전히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사람  
들 사이에 당신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신다. 하  
나님께서 안식일이 우리의 마음을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를 원하시며 그를 앞으로써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신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주셨을 때 그는 저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상 숭배자들과 구별될 것임을 저들에게 가  
르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한 자들과 하나님을 저희  
의 창조주와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자들과의 사이  
에 구별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주께서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이 같이 이스  
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  
약을 삼을 것이니”(출 31:17, 16)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상 가나안에 들  
어갈 때 안식일이 저들을 구별하는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  
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때에 저들을 구별하는 표징이 된  
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  
계의 표징이요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하는 한 표  
징이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과 범죄자  
들과를 구별하여 준다.

그리스도께서는 구름 기둥으로부터 안식일에 관하여  
언명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출 31:13)고 하셨  
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표징으로 주어진 안식일은  
그가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표징이기도 하다.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  
조하는 능력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안식  
일은 곧 성화(聖化)의 표징이다. 참된 성화는 하나님과 일  
치하며 품성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성화는 하  
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원칙들에 순종함으로써 얻어진다.” -  
교회에 보내는 권면, 261. ◇

#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 1

A. T. 존스

주께서는 오신다. 그분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히 12:29].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그대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그대들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멸망이 홀연히 그대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그대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그분의 오심에 관계된 것으로 그대들과 함께 본질적으로 언제나 말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오실 때의 광경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살후 1:8, 9]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살후 2:8]. 그래서 주께서 그분의 영광으로 오실 때 그것은 불타는 영광이 되며 모든 악인과 모든 악을 가진 모든 자들을 태워버리실 것이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와 그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시리라”[사 13:9, 11]. 그리고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말 3:2]. 질문은 이것이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므로 그분이 오실 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그분을 그의 계신 그대로 뵈게 될 것이니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실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분이 계신 그대로 오실 것이며 우리 모두는 각 사람이 있는 그대로 그분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 날에는 품성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며 우리 속이 변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에는 모든 다른 날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죄에 저주가 임할 것이므로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죄들로서 죄인들이 되어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모든 불경건한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모든 불의한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롬 1:18]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오직 그의 경건치 않음에 매달리므로, 오직 불의로 진리를 막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첫째로 그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가 매달리고 있는 죄에 나타날 것이며 또한 그 진노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선택하고 그의 선택에 매달리므로 그는 그의 선택의 결말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롬 1:18].

전에 읽은 말씀에 계속하여 읽어보자: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입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희를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좇

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살후 2:8-12]. 그들은 진리를 알고 있었다. 그 진리가 그들에게 제시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그것들을 말하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 자신의 양심이 그 모든 것을 증거 했으나 그들은 그 진리를 믿지 않았으며 그들은 “불의를 좋아하”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나고 그들을 치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미 언급된바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는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매달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이 그로부터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심판이 이르는 그 큰 날에 오른 편과 왼편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있으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들뿐만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도 그러할 것이다. 주께서는 그들이 결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셨다. 주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며 그들은 결코 그것을 알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들을 위해 준비되지 않았다. 주께서는 그들이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택함을 받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하며 그곳은 그들 자신을 연결시킨 그 장소이며 그들이 분리되어서는 안 될 곳이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말씀하신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 25:41].

그곳은 그대들을 위하여 예비 되지 않았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슬퍼할 것이다. 주께서는 그들이 그들을 위해 예비 되지 않았던 그 장소에 들어간 사람들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도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결정적인 선택이었다는 것과 그들이 선택할 충분한 기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것이며 그들이 선택한 결과를 받을 때 참으로 불평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으나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어떤 사람도 이런 상황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히 12:29]. 주께서는 소멸하는 불로서 임하실 것이다. 소멸하

는 불로서 그분이 오실 때 악과 연합한 자들에게 주께서는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살후 1:8]. 그들은 하나님을 알 기회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했지만 그들은 행동으로 그분을 부인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다. 다음의 말씀을 읽어보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횡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딤후 3:1-8]. 그리고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기회를 경시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분을 알만한 기회를 거절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드러낼 때 그분을 알 모든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시며 이는 예수께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요 12:47, 48]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를 찾도록 하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며 이는 주 예수께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그를 심판할 “하나”가 있는데 나는 우리가 그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읽어보자. “만일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영생인데 왜냐하면 영원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

다면 영생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은 이미 나왔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하는 자” “나를 거절하는 자,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생명의 말씀인 말씀, 그 말씀이 그대에게든지, 혹은 나에게든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든지 임할 때, 영생이 그대에게든지, 혹은 나에게든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든지 임하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생은 말씀이 임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거절하면 그는 영생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거절하는 것을 택함으로 그는 영원한 사망을 택하는 것이다. 영생을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택하는 것이며 영생을 거절하므로 그는 사망을 택한다. 그렇게 될 때 그는 자신이 택한 사망이 그에게 임한다. 누가 사망을 그에게 가져다주었는가? 누가 그에게 사망할 만 하다고 했는가? 누가 그를 심판했는가?

누가 그에게 사망선고를 내렸는가? 오직 그대 자신이 그렇게 했다. 아무도 전혀 그와 관련이 없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다. 그는 자신 앞에 영생이 주어져 있었다. 하나님은 영생을 그 앞에 주시고 그는 권유할 만한 모든 것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영생을 받도록 설득을 받았으며 영생은 그에게 매력적이었으며 온통 영생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영생으로 도배되어 있었으며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으로 꾸며져 있었으며 그 자신의 마음이 영생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에게 “그것은 옳은 것이며 그것은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불의를 좋아” [살후 2:12]했다. 그는 말씀을 거절했으며 영생의 말씀을 거절하므로 그는 영생을 거절했고 그렇게 하여 그는 영원한 사망을 택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영원한 사망을 받으므로 오직 그가 택한 그대로 죽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죽기에 합당한 그대로 죽게 된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말한 것들을 반박하고 모독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행 13:46]고 말했다. 주목하라. 우리가 그대들이 “영생을 얻을 가치가 없다”고 선포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대들이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 멸망을 당하는 각 사람은 그 멸망의 심판을 그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이런 사상이 배어있다. 곧 사람에게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이 그 자신을 단단히 묶어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다. 주께서는 [죄인이 아니라] 오직 죄를 미워하시므로 죄의 징벌이 임하며, 그분의 진노는 오직 불신과 불의를 향하여 임하게 되고 그분은 백성들이 죄로부터 분리되도록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셨는데 그분이 오시는 불로 소멸하시는 날, 세상에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때 세상은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보게 되며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은 오직 여전히 “죄”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이 죄를 없이 하시려고 행하신 것보다 무슨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겠는가? 그분은 독생자를 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을 주셨으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주께서는 믿는 각 사람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약하셨다. 말씀은 임치 않고 그 말씀은 너무 자주 사람들을 잘못 인도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 다음 절 요 3:17에는 “might”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있다. “하나님이 그 이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7].

그것은 너무도 그렇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선물 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영원한 가능성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러나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고 못 얻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들 각 사람이 구원을 얻을 가능성을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선택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십자가를 지고 그 수단을 채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택하고 그분을 믿으면 더 이상 “가능성”은 없어진다. 택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다. 요 3:16을 다시 한 번 읽어보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그분 자신이 서약하신다.

아무리 악할지라도 이 세상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별은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한 일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마련해 놓으셨다. 참으로 좋은 선물이다. 이것은 무한한 은총이며 무한한 자비이다. 하나님은 그토록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

죄를 없이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의 이름은 “예수”라 부른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므로 그분을 받아들일 때 나는 멸망치 않는다. 그러면 그분을 통하여 죄를 짓지 않는 대책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내가 죄에서 떠나기를 기뻐하고 죄에서 분리되는 것에 동의하면 들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롬 6:6].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은 죄를 멸하기 위해서이다. 이 생각을 결코 잊지 말라. 이 생각에 초점을 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붙잡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죄를 멸하기 위해서였다. 이 목적이 성취될 것을 주님께 감사하라. 롬 6:6을 다시 한 번 읽어보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를 멸할 뿐 아니라 죄를 섬기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롬 6:14]. 다음의 성구들을 따라 생각해 보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승리와 기쁨이 여기에 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롬 6:7]. 십자가에 못박힌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들인 사람, 그는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줄을 믿노니” [롬 6:8]. 그러나 그는 어디서 사는가? 죄 가운데 사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확실하나 그것은 죄에서 벗어나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롬 6:9]. 사망이 주장할 수 없었다. 사망은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분 자신을 사망의 지배에 순복하심으로 자신을 포기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망은 그분을 포로로 잡아놓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에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망이 주도권을 갖고 있을지라도 죄에서 벗어나면 [죄에서 분리되면] 사망은 어떤 사람도 붙잡아 놓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롬 6:10-14].

여기서 사도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대의 육체 가운데, 그대의 지체 속에서 죄가 주관치 못하게 하라. 그러면 다음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롬 6:16]. 그 다음의 말씀을 보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롬 6:17, 18].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의의 종들이 되게 한다. 다음의 말씀은 의의 종들이 “거룩함에 이르”고 거룩함의 결국은 영생이며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 12:14]고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A, B, C가 분명한 것처럼 분명함이 온전히 드러나는데 주님의 재림을 위한 오직 유일한 참된 준비는 “죄로부터의 분리”이다.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이야기할지라도, 때의 징조를 아무리 많이 설교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할지라도 우리의 끊임없는 생각이 절대적으로 “죄로부터의 분리”에 있지 않으면,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종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의 공언은 전혀 거짓이다. 우리는 거짓처럼 일해서는 안 되나 우리는 우리자신을 거짓으로 꾸미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속일 수는 있으나 변하지는 않는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죄로부터의 완전한 분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의 공언은 거짓이다. ◇

## 2.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下)

김 동 춘

### 1. 당분의 질과 전두엽의 반응

전장에서 당분의 질과 전두엽의 반응이 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완전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이 섭취되었을 때 나타난 반응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집중력 지속시간이 길다.
- (2) 학습능률이 향상된다.
- (3) 안정감과 책임감이 있다.
- (4) 인내심, 지구력(지속성) 있다.
- (5) 창의력과 사회성이 있다.
- (6) 봉사심, 이타심, 순종심, 남을 배려한다.
- (7) 자제, 극기, 절제를 잘한다.
- (8) 평화, 화목, 사랑, 친절, 동정심이 있다.
- (9) 긍정적이고, 적극성이 있고 낙천적이다.
- (10) 건강하고 명랑하다.

뇌의 대사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공급되는 포도당만을 의지하고 있다.

완전 탄수화물은 뇌 영양물질인 비타민 B<sub>1</sub>이 포함된 좋은 포도당을 만든다.(배아가 있는 통곡류) 불완전 탄수화물은 뇌 영양물질(비타민 B<sub>1</sub>)을 빼앗아 간다.(배아와 껍질이 없는 정제곡류,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등)

두뇌 건강에 좋은 감자, 현미, 통밀빵, 볶은 곡식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충분히 천연과일과 유기농 채소, 그리고 해초류들로 골고루 잘 섞어 먹고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두뇌가 좋아지면서 품성이 좋아진다.

### 2. 전두엽의 장애와 의지력 행사

의지력 부족으로 많은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전두엽의 건강은 곧 의지력을 회복하는 길이다.

어떻게 건강한 전두엽을 소유할 것인가?

\*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길이다.

- (1) 신선한 공기 가운데서
- (2) 맑은 햇빛가운데 호외 생활을 하고
- (3) 참된 절제를 하면서
- (4) 올바른 휴식을 취하고
- (5) 적당한 운동(노작)을 하고
- (6) 합당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취하고
- (7)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 (8) 건전한 믿음, 좋은 생각, 긍정적이고 명랑, 감사한 생활을 한다.

전두엽의 손상은 인류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 원인에서부터 결과를 잘 분석해 보자.

“부정적인 생각은 의지를 그릇된 방향으로 인도해서 이성애 굴복하기를 고집스럽게 거절하므로 병을 저항할 수 없는 병약한 자가 되어 죽음에 이르게 한다.”(교회증언 2권, 524.)

\* 전두엽의 상해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의지가 주님 편에 놓이게 하라 그러면 신체적 건강은 놀랍도록 증진될 것이다.”(건강에 관한 권면, 504-505)

**전두엽과 『의지』와의 관계 (1)**

“의지는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지배력이며, 다른 모든 기능을 통제 한다. 의지는 취향이나 경향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능력이다.”(교회중언 5권, 513.)

의지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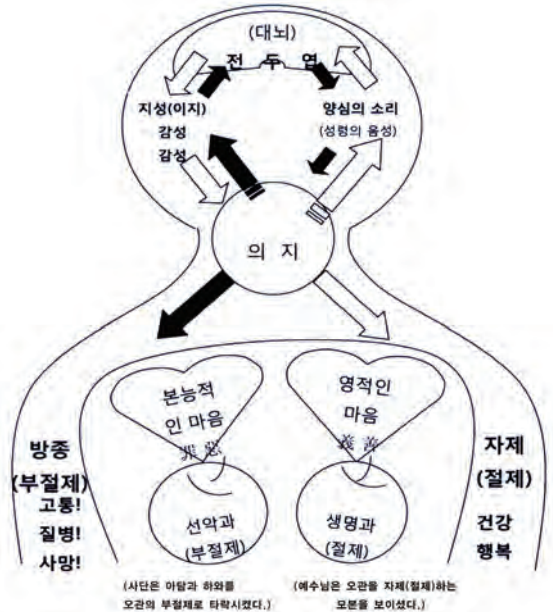
- (1) 지배력이다.(5T. 513)
- (2) 결정, 선택의 능력이다.(5T. 515)  
“하나님에 대한 순종, 불순종을 결정하는 능력”
- (3) 행동의 근원이다.(5T. 515)
- (4) 신경 안정제이다.(1T. 387)  
“마음과 신경은 의지의 행사로 말미암아 건강과 힘을 얻는다”
- (5) 공격적이다.(RH. 1896. 8. 25)  
“목적을 이루는데 기여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분투한다.”
- (6) 가능, 불가능은 우리의 의지 안에 있음(YI. 1897. 1. 28)
- (7)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  
동물-주인에 의해 지배되어야 함(훈련)  
사람-하나님께 지배되어야 함(교육)
- (8)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킴(하나님의 의지와 협력)  
“우리의 전체적 본성이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게 됨”(교회중언 5권, 513-514 참고)

『의지』의 올바른 행사는 전두엽의 건강에 좌우된다!

“교육을 통해 - 마음이 지성적으로 되고 의지가 주님 편에 놓이게 하라. 그러면 신체적 건강은 놀랍도록 증진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단순히 인간의 힘으로 결코 성취될 수 없다. 모든 악한 행습과 교우 관계를 버리고 모든 일에 절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영혼에게 주어지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영적 예배인 것이다.”(건강에 관한 권면, 504, 505)

**전두엽과 『의지』와의 관계 (2)**

의지는 전두엽에 있다.



의지(자아)가 양심의 소리(성령의 음성)에 순응하면 지성과 감성의 올바른 판단으로 자제와 절제, 극기, 인내하도록 한다.

이러한 마음을 영적인 마음이라고 하며 선과 의를 추구하고 영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누리며 살게 한다.

그러나 양심의 소리(성령의 음성)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지성과 감성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고 방종과 부절제의 길을 걸으며 본능적인 죄와 악을 마음에 품게 된다.

“복음은 영혼을 녹이고 복종케 한다.”(전도법, 204)  
복음은 의지에 감동을 준다-성령께서 우리가운데 역사하실 때 부절제 (방종)하던 자가 절제(자제) 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에 대한 최대의 증거는 자제이다.”(시대의 소망, 301)

“식욕의 방종이 육체적 쇠약을 초래하고 감수성을 마비시켜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을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임

## 2.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下)

을 아신 그분께서는 인간방종이 도덕적 능력을 타락 시켰다.”(의료봉사, 264)

“고통과 질병과 사망은 방종에 대한 분명한 형벌이다.”(전도법, 266)

“자신을 정복시키고 정욕을 의지의 통제아래 두는 것은 남자가 성취할 수 있는 최대의 정복이다”(교회증언 3권, 183)

전두엽의 기능은 무엇인가?

- (1) 지성: 이해하고 인식하고 판단하며 분별하는 기능
- (2) 감성: 소원하며, 느끼며 충동하는 감수성의 기능
- (3) 의지: 오관(五官)을 통해 정보가 들어오면 지성과 감성은 각각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는다. 그러나 지성과 감성이 느끼고 말하는 것을 판단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로 『의지』이다.

\* 『의지』는 올바른 선택 없이는 한 인간의 인생 방향을 올바르게 결정할 수 없다.

\* 지성과 감성이 서로 충돌할 때 『의지』가 판단하며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선택은 생각의 결과이다.

\* 생각이란? 지성과 감성의 결합을 의미한다. 사상 사고... 올바른 생각은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곧 『의지』의 힘이다.

\* 『전두엽』의 건강은 곧 우리의 건전하고 올바른 사상이며, 양심이고 인격인 것이다.

\* 의롭게 된다는 말은 전두엽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 두뇌(전두엽)를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 회복을 방해하는 법을 불철주야 연구하고 또 연구한다.

인류 역사의 대쟁투는 이 전두엽을 빼앗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쟁투이다.

우리는 대쟁투 역사의 주역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사단의 비밀을 알게 되어 사단의 속임수에 정복당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정부는 사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맹목적 굴종이나 무리한 제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이지(理智)와 양심에 호소한다.”(정로의 계단, 43)

“모든 범죄행위, 그리스도의 은혜를 멸시하거나 거부하는 모든 행위는 그대 자신에게 영향이 돌아올 것이다. 또 그것이 그대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의지』를 약하게 하고 이해력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탄원하시는 간절한 간구에 마음을 덜 기울이게 할 뿐 아니라 기울일 수도 없게 만드는 것이다.”(정로의 계단, 33)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지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이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성질은 그리스도의 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대들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와 조화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47)

### \* 노아시대의 타락과 현시대

“여호와께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창 6:5)

### \* 비열한 죄악에 이르기 까지 타락함

“우리는 홍수 이전 시대의 역사와 그 영원히 타락한 도시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신중하지 못하고 가벼운데서 시작하여 비열한 죄에 이르기 까지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들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타락한 감화를 땅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무서운 파멸로 응하셨다. 기호와 정욕, 이성을 지배 하였던 자아(의지)는 그들의 하나님이였으며, 지극히 높으신 자를 아는 지식은 타락하고 정욕의 이기적 방종으로 거의 사라져 버렸다.”(서신, 74. 1896)

### \* 합법적인 것을 그릇 사용함

“홍수 전 시대 사람들의 죄는 원래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들을 그릇 사용하는데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을 더럽혔다. 식욕과 비열한 정욕의 방종으로 그들의 상상력은 완전히 부패되었다. 홍수 전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이 이끌고 다니며 조롱하는 사단의 노



예들이었다.(원고, 24. 1891)

\* 탈선된 식욕

“노아시대의 사람들은 탈선된 식욕의 방종으로 인하여 타락되었기 때문에 쓸어 버림을 당하였다. (영문시조, 1875. 9. 2)

\* 자기 욕망의 경배-범죄를 조성하는 것임

“그들은 이기적 방종, 곧 먹고 마시고 환락을 찾아 휘청거리는 일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다. 만약 그들의 욕망이나 정욕의 방종이 간섭이나 방해를 받으면 그들은 폭력과 범죄를 일삼았다.

노아시대의 사람들의 대다수는 진리를 대적하였고 거 짓된 것들에 홀려 있었다. 땅은 포학으로 충만하였고 전쟁과 범죄와 살인이 그 시대의 질서였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도 꼭 그러할 것이다.

\* 조롱 당한 노아

“그러나 크신 사랑으로 허락된 그 은혜 기간이 노아를 조롱 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비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노아가 선포한 심판에 대한 그의 열심과 열정을 비웃었다. 그들은 노아를 광신자라고 부르면서 그의 기별을 잊어버리려고 축제를 열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마침내 땅에서 그들을 쓸어버리고 말았다. (원고, 29. 1890)

\* 최후의 심판 때에 사용될 땅속에 숨겨진 물질

“하나님께서서는 석탄과 석유의 형태로 땅속에 보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들을 최후의 멸망의 도구들로 사용할 것이다. 홍수 전 시대의 사람들은 멸망시킬 무기 창고의 무기로서 땅의 깊음의 샘들을 터뜨림 같이, 일천년 끝에는 땅속에 있는 불들을 명하사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들은 최후 멸망의 무기로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으로 홍수 후 시대의 사람들은 물론, 홍수 전 시대 사람들도 그 불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영적선물 3권, 87)

\*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호 받음

“성난 파도와 격랑 속에서도 방주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은 그리스도이시었다.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창 7:21-23)(리뷰 앤드 헤럴드, 1901. 3. 12)

## 전두엽과 「믿음」 생활

“의지의 참 힘을 이해하기 전까지 그대는 끊임 없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모든 것을 믿고 약속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약속이나 그의 믿음은, 믿음과 행동의 측면에서 의지를 활용하고서야 비로소 효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대가 의지를 다하여 믿음의 싸움을 하면 승리할 것이다. 그대의 감정, 느낌, 정서를 신뢰 할 수 없다” (교회증언 5권, 513. 1889)

“그러나 그대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 그대의 의지를 예수그리스도의 의지에 굴복 시키는 것은 그대가 할 일이다. 그대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소유 하셔서 그대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실 것이다. 그대의 전체적인 본성은 그 때에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그대의 생각은 그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원하는 대로, 그대의 충동과 정서를 지배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는 의지를 지배할 수 있고, 생애에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킴으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지고, 모든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과 연합할 수 있다.

그대는 그대를 하나님의 능력에 굳게 붙들어 매어 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생애, 산 믿음의 새 생애가 그대에게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의지는 사단이 그대를 사로잡아 파멸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동료들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협력해야 한다.” (교회증언 5권, 513-514)

“의지가 하나님 편에 놓일 때에, 성령께서는 의지를 취하셔서 그것을 신적인 의지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 (서신, 44. 1899)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 할 때에만 안전하다” (서신, 44, 1896)

“...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의지를 통해서이다. 의지를 사탄에게 굴복시키는 것은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베어 버리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평생을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살기를 동의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자주 있다...” (산상보훈, 61-62.)

1)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정신력과 도덕적 능력의 빠른 균형은 신체의 건강상태에 크게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한다. 신체를 허약하게 만들고 저하시키는 일체의 마취제와 불건전한 자극제들이 의지력과 덕성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한다. …”

2) 과감하게 극복하라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당신께서 주신 의지력을 활용하기를 기대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모두 사고력을 당신을 위해 사용하기를 기대하신다. … 영혼의 성전을 훼손시키는 일체의 행습을 과감하게 극복하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신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고 나와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사 27:5) -절제생활, 227.

3) 거절하는 것은 장부다운 일임

“죄를 짓는 것은 장부답지 못한 일이고 해로운 습관에 방종하는 것은 연약하고 비겁하고 비천한 일이다. 그러나 타락한 식욕을 거부하는 것은 강하고 용감하며 고상한 행위이다. 바벨론의 궁정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죄의 유혹들에 에워싸여 있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그의 고결성을 유지하였다. 그가 하려고만 하면 이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유혹을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 책에 대장부로 기록되지 못한다 …” -절제생활, 219.

4) 청소년시기는 파종기이다

“만일 어릴 때에 바르고 고결한 습관을 형성하면 일반적으로 그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것이다. … 청소년기야말로 일생 동안 실천할 생활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할 시기이다. 이 시기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자제력을 배양하고 확립해야 할 때이다. 청소년기는 파종기이다. 이때에 뿌려진 씨가 인생과 내세를 위한 추수를 결정하게 된다.” (건강에 관한 권면, 113)

5) 유혹에 대처할 준비를 시킴

“자녀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되 그들이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과 유혹과 위험이 닥칠 것을 예상하도록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한다. … 혹시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억지로 위험스런 자리에 가게 되더라도 그들은 의에 굳게 서서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품성의 능력을 소유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의 품행이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

님을 굳게 신뢰하는 청년들의 도덕적 능력은 가장 강력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것이다.” (절제생활, 214)

6)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하는 자들은 어떠한 유전적 혹은 후천적 습관이나 경향의 노예가 될 수 없다.

그들은 저열한 기질에 얽매이는 대신에 오히려 식욕과 정욕을 지배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유한한 힘만으로 죄악과 싸우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악으로 기울어진 선천적 혹은 후천적 경향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후히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치료봉사, 174-175)

7) 의지력의 올바른 활용을 통하여 완전한 변화가 생애에 이루어지게 된다.

“...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굳게 붙들어 줄 능력을 위로부터 받는다. 순결하고 고상한 생애, 식욕과 정욕에 승리하는 생애는 연약하고 요동하는 인간의 의지(意志)를 전능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에 결합시키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치료봉사, 158-160)

8) 의지란 기호나 경향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요 결정하는 능력이다.

의지는 사람 속에 작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도 불순종하게도 만드는 최고의 능력이다. 의지력의 위력을 참으로 깨달을 때까지는 그대는 항상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대는 어떤 것을 믿고 약속할 수 있겠지만, 그대의 의지를 옳은 편에 고착시키지 않는 한 그대의 약속이나 신념은 무력한 것이다. 만약 그대가 그대의 의지력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그대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9) 포로를 해방시키는 능력.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그리고 신기들린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폭풍을 그치게 하시고 요동하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께서서는 사단에게 억눌려 괴로워하는 심령에 평화를 선포하신다. ... 한 미친 사람이 무리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오면서 외쳤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막 1:24)

예수께서 마귀를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

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눅 4:35)

이 사람의 병의 원인도 그 자신의 생활 때문이었다. 그는 죄악의 쾌락에 매혹되어 인생을 큰 환락거리로 삼고자 생각했다. 부절제와 경박한 생활이 그의 고상한 성질을 파괴시켜 사단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 10) 인간의 크나큰 필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식욕의 방종이 육체적 죄악을 초래하고 감수성을 마비시켜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을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임을 아신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방종이 도덕적 능력을 타락시켰으므로 인간의 크나큰 필요는 방종의 생애에서 극기와 자아희생의 생애로 돌아오게 하는 것, 곧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개심을 아신다.” (절제생활, 120.)

### 11)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절제와 성경상 위생, 22)

### 12) 유일한 치료제?

“젓된 생활을 버리고 순결한 생활을 해보려고 투쟁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능력의 최대의 요소는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행 4:12)이 없고 오직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평안의 소망과 젓된 기질에서의 구원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 7:37) 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악에 대한 유일의 치료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다.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굳은 결심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세상의 모든 맹세들이라도 악습의 힘을 분쇄하지 못한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지 않는 한 모든 일에 절제를 실천하지 못한다. 우리는 한 순간이라도 우리를 죄에서 보전할 수 없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 13)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성품 완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주셨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그의 정신은 율법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며 그 율법은 모든 포로들에게 석방을 선포하는 최고의 법이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사람은 자유케 된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은 바로 완전한 인간성

의 회복인 것이다.

### 14) 이기는 자에게 건강과 힘이

“그릇된 습관과 젓된 생활에 방종하던 자가 거룩한 진리의 능력에 굴복하여 그 진리가 마음속에 작용하게 될 때에 이때까지 마비되었던 것처럼 보이던 도덕력이 재생(재창조) 될 것이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가 영원한 반석에 그의 영혼을 고정시키기 전보다 더욱 왕성하고 더욱 깨끗한 이해력을 소유하게 된다.

그의 신체적 건강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함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향상될 것이다. 진리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자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곧 건강이요 활력이다.” (그리스도인 절제와 성경상 위생, 13)

### 15)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의 능력이

“사람들이 영혼의 성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각성시켜 그들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성을 회복시키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깨닫게 하고 마음을 회개 시킬 수 없다.

습관의 노예가 된 자들은 오직 그 분에게서만 그들을 얽매고 있는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이 그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활력을 앗아가는 습관에 계속적으로 방종하는 동안에는 그의 몸을 하나님께서 가납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바치기가 불가능하다. 사도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절제생활, 124.)

### 16) 탐닉은 죄임

“차, 커피, 담배, 술에 대한 불건전한 식욕에 탐닉하는 것은 부절제요, 생명과 건강의 법칙을 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이런 금지된 품목들을 사용하면 창조주께서 계획하지 않은 상대가 인체조직에 발생한다. 인간 가족 중에 어느 누구라도 이에 탐닉하는 것은 죄(罪)이다... 고통과 질병과 사망은 방종에 대한 분명한 형벌이다” (절제생활, 119.)

### 17)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장 우선적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죄를 용

서하시는 분으로 제시하고 또 복음을 가능한 한 분명히 깨닫게 함으로 영혼을 녹이고 복종케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가 안된 영혼들이 죄를 깨닫게 된다. ... 담배 골초가 그들의 우상을, 술꾼이 술을 포기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할 수 없다.

**극기와 자제를 가르침**

**1) 영아기에서부터 시작하라-** “극기와 자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되 영아기에서부터 한결같이 실천케 해야 한다. 맨 먼저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그들이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다는 것과, 식욕은 의지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의지는 침착하고 총명한 이성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제생활, 209.)

**2) 개혁의 원칙을 가르치라-** 부모들이여, 깨어 기도하라. 모든 형태의 부절제를 철저히 방어하라. 그대의 자녀들에게 참된 건강개혁의 원칙을 가르치라.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내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끔찍한 범죄와 죄악과 부정행위가 도회지에 편만해 있지 않는가! (절제생활, 210.)

**3)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술꾼으로 만들지 말라!**  
 식욕의 부절제는 술을 먹도록 하고 담배를 피우도록 충동한다. 술을 먹지 않아도 간식(각종 과자류, 빵류, 사탕류, 음료수 등 어떠한 음식이든지)을 하므로 위에서 알코올을 만들어 뇌세포를 파괴하여 침착성을 잃고 의지력을 약화시켜 인생을 병약하게 살고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사단의 유혹-인간을 치명적으로 속이고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최후의 살아남을 자(남은 무리)는 부절제의 유혹을 이기고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

**4) 깨어있어야 한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온갖 재능을 총동원하여 각종 자극식품과 환경적 공해, 약물, 알코올음료, 카페인음료(식품), 의복, 육류, 담배, 영상, 음악, 심령과학(최면술, 강신술)이 모든 것들이 인체의 가장 중요한 영적센터, 두뇌(전두엽)을 파괴시켜 인간의 미(美)를 상실케 하고 포악, 잔인, 무자비한 악마의 성품으로 타락시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어 전을 더럽혀 성령의 임재가 떠나도록 하는 음흉한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도록 깨어 있

어야 한다.

**5) 이기는 자는 ...**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 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 3:5)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다.

**\* 인생의 기초공사**

집을 건축하는데도 기초공사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인생의 기초공사는 어린 유아기로부터 청소년기에 놓인다.

이 시기엔 입맛이나 건강생활 습관도 대부분 형성된다. 이토록 중요한 자녀의 어린 시기에 부모의 생활과 교육이 올바르지 못하면 자녀의 일생에는 평생 고치기 힘든 악습의 뿌리가 내린다. 청소년기는 습관을 고치는데 유리한 시기이다.

건강원리를 가르칠 때 그 목적이 곧 몸과 마음과 영혼의 최고의 발달을 이루어 주는데 있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천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므로 우리의 우익을 위하여 마련된 법칙이라는 것과 그 법칙에 순종할 때 이세상에서의 행복이 증진되고 내세를 위한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놀라운 기관, 곧 인간의 육체와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을 연구하도록 가르치고 그리하면 자녀들이 건강법칙을 회생과 자제의 법칙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그들은 사실 그대로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축복으로 간주 하게 될 것이다.

**정크 푸드가 아이들을 먹는다!**

(지금 세계는 정크푸드(Junk Food)와 전쟁 중이다)

**\* 정크푸드식품이란?**

설탕으로 된 아이스크림, 초콜릿, 애플파이, 튀김, 햄버거, 프렌치프라이, 핫도그, 진한소스, 콜라, 도넛, 커피, 맥주 등 몸에 해로운 식품들을 말한다.

**1. 정크푸드와 전쟁!**

1)인체에 해를 끼치는 쓰레기 식품?->국가 경쟁력과 생명력 격감.

2) 프랑스-적극대처 방안 개정, 학교 내 정크푸드 판매 금지.

3) 미국-학교급식, 청량음료, 인스턴트식품 추방법안-아동식품 법안 발표

**2. 지나쳐서 뇌를 망침**

- 1) 트랜스지방-각종튀김, 라면, 칩, 치킨, 도넛
- 2) 패스트 푸드-소금과잉(칼륨, 나트륨 불균형 세포를 죽게 함)고혈압, 신장염, 비염, 등 난치병 유발.
- 3) 청량음료-저 혈당, 뇌영양공급장애.
- 4) 인스턴트 식품-고칼로리, 비만초래.
- 5) 정크푸드-(첨가물, 방부제, 착색제)-주의력저하, 욕구불만, 성급함, 난폭, 성격형성에 지대한 영향.

**3. 부족해서 뇌를 망친다,**

- 1) 정크푸드-섬유질부족으로 오는 장애.
  - 가. 장내노폐물, 중금속배설 역할을 못한다.
  - 나. 배설방해와 활성산소증가로 뇌에 산소공급이 불가.
  - 다. 중금속 수은은 아미노산 대사를 억제한다.
  - 라. 지능을 저하시킴.
  - 마. 우울증 등, 각종현대 병을 유발시킴.

2) 패스트푸드-비타민, 미네랄 부족으로 뇌 정상대사를 방해한다.

**4. 부족함이 폭력을 만듦.**

- 1) 정크푸드에는 비타민 B군이 없다. 영양부족으로 뇌 중추 신경 장애유발, 난폭한 성격형성.
  - 가. 비타민 B1부족-뇌신경 장애유발
  - 나. 비타민 B6부족-신경과민
- 2) 패스트푸드-빠른 속도로 청소년을 삼키고 있다!

**◎ 비행 청소년을 만드는 음식**

\*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먼저 레스토랑부터 예약하라는 말이 있다!

(식성이야말로 그 사람의 비밀스러운 곳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밥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한 인간의 전기를 쓸 수 없다.

1) 육식을 좋아하는 유형-다소 정열적이지만 변덕스럽고 충동적이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2)해산물을 좋아하는 유형-인내심이 강하며 침착한 편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에 따라 일을 추진하고 주변의 신임을 얻는 경우가 많다.

3)야채를 좋아하는 유형-의욕이 강하고 활동적이며 평화를 좋아하고 투쟁을 피하려고 한다.

4)튀김을 좋아하는 유형-활기차고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인데, 지나치게 개방적이며 서 때때로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

5)과일을 좋아하는 유형-주의력이 깊고 민감하다, 경쟁을 싫어하며 주변에 친구가 많다.

**1. 식성과 성격의 관계**

- 1) 맵게 먹는 사람-모험심이 강하고, 적극적 이고 급히 먹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다.
- 2) 신음식-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다.
- 3) 단것-신경쇠약, 욕구불만, 긴장. 초조해져 호르몬 작용 못한다.

**2. 저혈당과 범죄**

- 1)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은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여 저혈당을 부른다.
- 2) 증상으로 화를 쉽게 자주 내고, 집중력이 없고, 인내력이 부족하고, 불안, 기억력부족, 공허감, 감정조율이 안됨, 긴장, 머리혼란, 자살충동, 과식충동, 흥분(손에 땀이 잘나고), 불면, 현기증, 시력불편 등이 나타난다.

**3. 중금속 오염이 폭력적인 학생을 만든다**

1,500명 환자조사(18세 이하 청소년 70%)-납, 알루미늄, 비소 등의 축적, 물과 토양오염, 패스트 푸드 오염으로 아토피, 천식, 비염, 알레르기, 감기, 만성 중이염, 등 일으키고 주위산만 학습장애를 일으킨다.

**4. 해결책은 문제 속에 있다.**

- 1) 정제식품 금하고 통곡류를 사용하고
- 2) 흰 설탕과 정크푸드를 금하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물 섭취하고
- 3) 식생활개선으로 육식을 금하고 필수 아미노산 8가지, 필수미네랄 16가지, 비타민 20가지 등 필수영양소 44가지 공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기본영양소인

- (1)탄수화물은 완전 탄수화물인 통곡류(현미, 통밀, 통밀가루 등)
- (2)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인 식물성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 2.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下)

노산이 풍부하게 든 콩종류 견과류 깨종류 씨종류)를 충분히 섭취하고

(3)지방질은 완전 지방산인 필수 지방 씨종류 깨종류 콩종류 견과류를 섭취하고

(4)무기질은 채소와 과일 그리고 해초류 (미역, 다시마, 파래 등) 로 대처하며

(5)비타민은 통곡류와 식물성에서 얻어야 하며

(6)섭유소가 없는 정제된 곡류와 육식을 피하고 섭유가 많은 근채류 과일류 채소류를 골고루 섭취하여야 하며

(7)생수를 섭취하므로 몸속의 노폐물과 소화 효소를 잘 만들어 몸 속에 병의 원인이 되는 독성을 몸 밖으로 배출해 내야 한다.

### ◎ 생체시계를 교란시키는 습관

생체시계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다 내분비계(송과선)가 그 리듬을 조절한다.

어두워지면 수면(휴식)을 취하고, 밝아지면 코티손과 세로토닌을 생산하도록 하여 잠을 깨운다. 그리하여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한다. 이런 질서를 생체 리듬이라고 부른다.

#### 1. 생체 리듬 담당관(官)

기관(器官) : 눈(가시광선)→뇌하수체(시신경)→송과선.

#### 2. 생체 시계가 교란된 현대인

수면을 위한(멜라토닌 호르몬) 시장매출규모 : 미국 연간 20조에 달함.

수면 클리닉 국내100개이상-뇌휴식 부족으로 기억력 부족, 불면, 우울증 급증.

#### 3.지방과다는 생체시계를 교란시킴

- 1)수면사이클 변화가 보고
- 2)생리학적 대사 조절 과정 변화가 오며
- 3)나쁜 식습관으로 유도하게 한다.

#### 4.야식(밤에 먹는 음식)이 생체시계를 교란시킴

- 1)야식하면 혈청 코티솔 분비 증가
- 2)멜라토닌 생산저하(수면불능)

3)렙틴생산저하(식욕조절)

4)천연 탄수화물에는 뇌 영양물이 풍부하다 정제된 탄수화물(백미, 흰 밀가루, 흰설탕 등)은 뇌 영양물질인 (비타민 B1, B6) 부족으로 생체시계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된다.

5)저녁 식사를 고단백으로 할 경우 수면에 크게 방해됨.

6)커피로 수면 방해와 몸의 휴식을 방해한다.

### 5.햇빛 부족으로 생체시계가 교란됨

1)인체는 낮에 햇빛을 받아 세로토닌 호르몬을 생산한다.

2)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 호르몬 생산하여 인체리듬 조절한다.

### 6.필수아미노산(트립토판)의 부족으로 세로토닌 호르몬 생산이 저하된다.

자연식 (콩종류, 견과류, 씨종류)에서 얻을 수 있다.

### 7.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세로토닌 생산을 저하시킴

1)통곡류(현미, 통밀, 통보리 등)에 많이 들어있다.

### 8.수면을 방해하는 것들

- 1) 밤샘공부-TV게임, 인터넷
- 2) 운동부족-성장 호르몬 생산저하
- 3) 야간근무 (직장인들)
- 4) 저녁만찬 (회식, 야간근무자들)
- 5) 밤샘여행, 소음 불빛(수면시)
- 6) 전자제품 전자파 영향(침실)

생체리듬이 무너지면 현대병(성인병)불치의병이 유발된다.

\*생체시계 교란은 생활(행동)패턴에 변화를 가져옴으로 뇌, 근육, 폐, 간, 심장 등의 기능저하, 에너지 충전 저장 분배, 해독 등 체내 대사과정 조절, 항상성 (homeostasis) 교란시켜 몸의 균형을 파괴하므로 정신적 육체적 큰 변화가 일어난다.

나쁜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생체시계에 나쁜 변화를 주므로 우리의 품성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은사들

## Gifts for God's People

엘렌 G. 화잇

“성령의 선물은 주의 사업을 위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사도 시대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믿음직한 것이다.” -시대의 소망, 823.

- 1월 모두에게 유익한 은사들
- 2월 성령은 기꺼이 순종하도록 도움

### 3월 진리의 은사

### 4월 사도직

- 5월 예언의 은사
- 6월 전도자, 목사, 교사

- 7월 이적
- 8월 계발해야 할 은사로서의 믿음

- 9월 치료의 은사
- 10월 도움, 행정, 영들의 분별

- 11월 영감적인 교제의 기술
- 12월 계몽, 연합, 완전

3월 1일 (월)

##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

“[여호와와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신 32:4].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 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시 89:13, 14) -부조와 선지자, 33.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두움과 파멸을 넘어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돌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시 97:2). 그리고 우주의 거민들, 즉 충성스러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모두가 언젠가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43.

우리의 은혜의 기간은 세상의 모든 금이나 은보다도 더욱 귀중하다. 인간에게는 두 번째의 시련이 주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품성을 형성할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은 하늘에서 무한한 대가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을 인성과 연합시키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속성들을 소유하셨다. 그분의 인성 속에는 모든 충만함이 거한다. 그분의 희생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그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갖고도 우리 스스로 하늘 선물의 진가를 평가할 수 없다고 주저했을 것인가? 그분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로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의 몫을 다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인간이 일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협력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으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8.1.25.

### 완전하고 정직한 법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시 119:142].

하나님께서서는 인류에게 완전한 법을 주셨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8.1.25.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주께서는 항상 바른 길을 추구하신다. 주의 율법은 진리, 곧 불변의 영원한 진리이다. 주의 가르침은 주의 속성과 일치한다. 그러나 사단은 그 진리들을 거짓 빛으로 드러나게 한다. 진리를 왜곡시킴으로 그는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분을 잘못 이해하기를 바란다. 그의 반역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부정한 폭군적인 존재자로 나타내려고 한다.

태초부터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목적을 각 시대에 수행해 왔다. 계속해서 그는 인간들 자녀 가운데 일하고 있다. 그는 모든 부류들을 지배한다. 기만의 동일한 방식, 동일한 논리를 그는 에덴에서 거룩한 부부를 속이기 위해 사용했으며 모든 시대에 걸쳐 사용해 왔다. 그의 사업 계획은 언제나 기만의 한 가지였다. 언제나 경건과 정결과 거룩함의 가면을 쓰고 때때로 그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분장한다. 그는 그의 참된 목적을 표면에 감추고 식별할 수 없도록 인간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 인간은 누구나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고 죄 아래 팔렸다. 회개하고 개심하지 않는 한 인간은 사단을 섬기는 율법의 속박아래 있게 되고 원수의 기만아래 타락하게 되며 여호와와 가르침에 대항하는 증거를 하게 된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인간은 의롭게 된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이 이런 순종을 할 수 있다. 율법의 신령한 성질을 깨닫는 사람들과, 율법이 죄를 탐지해 내는 능력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련된 속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사단이 처한 형편에 있는 것처럼 가망이 없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의 속박 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그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속박의 법이 아니고 자유의 법이 된다. - 영문시조, 1902.7.23.

### 순결하고 흠이 없는 계명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다” [계 119:151].

하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의 손가락으로 두 돌비에 당신의 계명들을 쓰셨다. 이 돌비들은 인간들이 보존하도록 맡겨진 것이 아니었으며 언약케 안에 넣었고 각 사람이 심사를 받는 큰 날에 계명으로 새겨진 이 돌비들은 모든 세상 사람이 알고 이해하도록 놓이게 될 것이다. 그것들에 대적했던 증인은 반박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 시대를 위한 순결한 진리는 생애의 개혁을 요구한다. - 원고모음 19권, 265, 266.

주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인간들의 계명을 받아서는 안 되며 오로지 당신의 법을 인정하도록 의도하셨다. 그분은 순결하고 변함이 없는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도록 의도하셨다. 극기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특징지어야 했다. 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해야 했으며 이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부의 통치아래 모이므로 계발되어야 할 정신과 품성이 발견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세상 임금이 착각한 것보다는 더욱 높은 법들에 순종해야 했으며 왕들이 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능력에 순복해야 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보호아래 있는 동안 천사들은 각각에서 섬기도록 사명을 받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특별한 대상이 된다. 그분은 자비와 사랑의 시험을 하고 계시며 사람들을 당신 자신계로 끌어 당기신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인간 품성 속에 새겨진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죄인들의 품성 속에 역사하는 사업은 인간들의 몸에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사업이다. 옛적의 육적인 성질은 죽고 그리스도의 모양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이 드러난다. 이 강력한 사업에서 천사들은 바라보고 기뻐한다. 그들은 이 죄로 저주 받은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훈련학교들을 갖고 계심을 안다. 그분은 진노를 받을 어두움의 무식한 자녀들을 취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발 앞에 부복하여 기쁨으로 당신을 배우도록 인도하신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3.12.19.



### 완전한 인도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6:13].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여 실천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일부로 삼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지식이 주어질 것이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에게 의와 진리와 공의의 표준으로 모든 사물들을 판단하도록 가르치신다. 거룩한 계시는 그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공급해 줄 것이다. - 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면, 484.

성령께서는 사단의 기만적인 철학들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존중하는 자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인간의 노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의 영감과 사랑으로 더욱 많이 기도하라. 진리를 믿는 가족들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말해야 하며 성경을 상고하는 결과로 그들에게 입할 말씀들을 이야기 할 것이다. 지금은 시험과 시련의 때이다. 지금은 믿는 가족들 각자가 그들 형제들을 참조하는 말들을 하지 않도록 저희 입술을 단아야 할 때이다. 용기와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을 강하게 할 말들을 하라. - 크리스 모음집, 5.

성령께서 그대를 교훈하심을 믿고 하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라.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순복해야 하며 남김없이 드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호와께 치욕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적인 책략에 최소한이라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진리를 믿음으로 각 시간을 성별할 필요가 있다. - 북음지, 1899.12.1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가서 그분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말할 준비가 된 자들을 인도하시고 지시하실 것이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자는 그의 수고로 보여줄 어떤 것을 가질 것이다. 자신의 최선을 다하기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각 사람은 그의 모든 필요불가결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911.3.2.

###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대처함

“보소서, 주께서는 마음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오니, 주께서는 감추어진 곳에서 나로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시 51:6]. [한글KJV]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겉치레만의 기독교에 의해 우리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속이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 - 교회증언 6권, 13.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은 얼마나 근면하고 계속적인 사업인가!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명예를 멘다. 악한 추측은 그의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는 진정한 겸손함으로 자기의 자질이나 성취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자기 찬양은 그의 경험 가운데는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 품성을 형성하는 것에 대하여 배워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 그것은 결코 자기 확장이 아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살피시고 자체력을 시험하시며 내면에 진실을 요구하시는 분께 그의 눈을 고정시킨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900.10.23.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비할 데 없는 매력을 발견할 것이므로 심령이 매혹될 것이다. 심령은 그분과 결속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아는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위대하고 존경받는 위치에 놓이는 한편, 자아는 비천하고 보잘것 없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깊은 사랑이 없이 하는 공언은 단순한 말에 불과하고, 무미건조한 형식과 무겁고 고된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도 신앙의 이론 곧 외적 신앙만을 머릿속에 간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 4:13). 마음 속에 진리를 간직하는 것 외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는가? 진정으로 거듭난 모든 영혼은 육신적 마음이 굴복된 분명한 표를 간직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최악의 경우를 알고자 결심하라. 그대들이 하늘의 유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 그대 자신들의 영혼을 진실하게 취급하라. 예수님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를 당신의 아버지께 바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대들이 하나님께 가납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다른 어떤 책 때문에 그 말씀을 체쳐놓지 말라. 성경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것은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계시해 준다. - 교회증언 1권, 162, 163.

## 궤변으로부터 자유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8:32].

아무리 은밀할지라도 그 자신이 어떤 죄에 방종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면에 그리고 숨겨진 지혜에 진실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의 형제들이 그대의 범죄를 알지 못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느낄 필요가 없다. 그대의 형제들을 잘 아시는 분께서 그대의 생애에 관한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하시겠는가? 그분은 그대의 마음을 열린 책처럼 읽지 않으시는가? 그대는 죄에 방종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위한 증인이 될 수는 없는데 이는 그대가 행위로 그분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인간이나 하나님 앞에 정죄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의 믿음과 기도를 특징지어야 할 거룩한 담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진리의 편에서의 그대의 울려 퍼지는 증언이 어디에 있는가?

만일 그대가 알고 있는 죄에 방종하고 있다면 그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말들을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대를 정죄하는 어떤 것이 그대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은 그대의 영혼 속에 없다. 그러나 그 모든 애정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되게 하라. 그러면 그대는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대의 지력과 그대의 재능과 그대의 혼과 몸과 영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무한한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구속하셨지만 얼마나 소수의 사람만이 그분 자신의 것을 그분께 돌려 드리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그분을 도적질하는가! 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위해 끝까지 소망을 품을 것이 아닌가! - 영문시조, 1892.2.15.

진리는 영적 감화력이 있다. 그것은 진리이신 분으로부터 직접 그리고 청렴함으로 마음 속에 들어간다. 내부에 받아들인 진리는 최고의 결과로 역사한다. 진리는 심령 속에 받아들여져야 하며 품성 속에 계발되고 표현되어야 한다.

진리에는 거짓이 전혀 없다. 가능한 모든 경우에 사단은 그의 기만적인 궤변들의 누룩을 소개하려고 한다. 진리의 토대로부터 단 하나의 말뚝을 느슨하게 하거나 한 기둥도 옮기려고 하는 해석들에 한 순간도 귀를 기울이지 말라. - 원고모음 12권, 125, 126.

## 행동하는 진리로 보존함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시 40:11].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保存)의 법칙이다. 땅속에 묻힌 씨는 열매를 내고 그 열매는 또다시 땅에 심어진다. 그렇게 함으로 곡식이 불어나게 된다. 농부는 그 곡식을 땅에 던짐으로 그것을 보존한다. 이와같이 인생에 있어서도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아낌없이 바쳐진 생명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게 될 것이다. - 실물교훈, 86, 87.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도덕적 특성에 의한 완전한 타락에서 세상을 보존해야 하나 만일 그들이 저희 도덕적 자질을 잃어버린다면 그 도덕적 더러움에서 세상을 회복할 가치가 없게 된다. 그의 구원하는 특성을 보존하는 자는 진리의 빛을 받고 그리스도와 협력하므로 인성을 유익하게 하도록 행사한다. 그러나 그들의 영성을 잃어버린 자들,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은 그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그들의 에너지와 능력은 가버렸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5.4.30.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으며 선악의 대쟁투의 구경꾼으로서 설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활발하게 종사해야 하며 이것은 마음의 모든 활력을 요구하며 인간의 모든 역량과 능력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선한 군사로서 우리 구원의 선장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선장의 위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시간마다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진리를 알되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 견지에서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 거룩한 원칙들을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 적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적으로 또한 감추어진 지혜 속에 있는 진리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우리로 의를 실천하며 인내와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품성을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된 대로 주의깊이 재음미하기를 요구하신다. 완전한 표준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7.11.30.

## 보호의 방패

“[여호와와]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시 91:4].

하나님께서서는 진리를 통하여 당신 자신에 관한 계시를 주셨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사단의 속임수에서 보호를 받는다. 오늘날 일반 종교계에 널리 퍼져 있는 악이 들어오도록 문이 열린 것은 진리들을 등한히 한 결과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특성과 중요성은 대부분 상실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과 영속성과 그 의무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 회개와 성화의 관계에 대한 오류를 가져왔고 그 결과로 교회내의 경건의 표준이 낮아졌다. 우리 시대의 신앙 부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결핍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

오늘날 각 교파에서 경건한 신자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개탄하고 있다. 에드워드 에이 파크 교수는 종교계가 당면한 위기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 “위험의 한 가지 원인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일을 게을리 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강단이 양심의 소리가 메아리치는 곳이었다. ... 우리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들은 주님의 본을 따라 강단에서 율법과 그 교훈과 그 엄숙한 명령을 명백히 가르쳐 줌으로써 언제나 놀랄 만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항상 두 가지 큰 원리를 반복하여 말하였으니 곧 율법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사본이며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복음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두 가지의 큰 원리를 반복하였다. 왜냐하면 율법은 복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참 품성을 반사하는 하나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이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위험은 죄의 흉악성, 죄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 죄의 결점들을 과소평가하는 위험을 가져온다. 율법을 거역함으로 조성되는 악은 그 율법이 지닌 의에 비례된다. ...

이미 언급한 위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과소 평가하는 위험이다. 오늘날 강단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경향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자비와 분리시키고 그 자비를 원칙으로 높이지 않고 하나의 감정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른바 신신학(新神學)은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놓은 것을 산산조각으로 해체시켜 버렸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65.

## 비결은 굴복하는데 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시 31:5].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힘과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세상을 붙들고 있다. 진리는 세상의 명예와 사업상의 그들의 지위와 매일의 양식에 있어서 그들의 입장을 희생하기를 요구하며 그들은 비틀거리며 실패한다. 그들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숙고하지 않는다. 그들은 변명하면서 “나는 주위의 사람들과 다를 수 없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섬길지를 연구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지를 연구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당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셨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시는 분이였다.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의 가난을 통하여 우리로 부요하게 하셨다. 하늘의 편에서 이 크신 사랑의 나타남에도 우리는 곧 없어져 버릴 우리의 빈약한 재물에 매달린다. - 영문시조, 1887.12.1.

우리는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나 아침에는 우리가 마음 속에 떠오르도록 습관이 되어 온 동일한 옛날의 생각의 굴레를 갖고 일어나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대신에 많은 것들을 번민하며 우리가 밤에 가졌던 평안과 기쁨은 사라지고 우울하고 불운함을 느낀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로 가서 “나의 모든 염려와 당혹감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고난에 당신의 도움이 있어야 함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 ‘내가 네 오른편에 서서 너를 돕고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믿으라.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대에게 놓인 의무를 행하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더욱 불신함을 나타낸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큰 모욕을 주었음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을 대하지는 않는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2.10.11.

성경을 연구 서적으로 삼아 성령의 지도를 열렬히 간청하며 진리로 성화되기 위하여 심령을 완전히 복종시킬 때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 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면, 357.

3월 10일 (수)

### 실제에 직면함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일 1:8].

우리는 우리의 결함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낙담하거나 개혁을 하되 철저히 개혁하기 위하여 우리의 연합함과 가능한 우리의 잘못을 알 필요성을 쉽게 자각하지 않는다. - 원고모음 6권, 188.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밝히 이해하면 할수록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며, 죄 없는 구세주의 생애와 비교해 볼 때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과 거리가 멀고 그들의 영적인 지각이 오류로 흐려져서 위대한 모범이 되시는 분의 품성을 이해할 수 없게 된 나머지, 그분도 자기내와 대략 같은 수준일 것이라는 생각을 품게 되어 감히 자신의 완전한 성화를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이며, 자신들의 진정한 상태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 자서전, 84.

1844년에 우리가 구주께서 오심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알기 위하여 얼마나 크게 염려했던가!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우리 각 사람은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이나 혹 옳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가? 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결함들을 때때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압니다. 만일 그대들이 내 속에 어떤 잘못을 알고 있다면 나에게 말해주기를 원합니다”고 서로 질문하는 일이 있었다. 때때로 잘못들이 드러났으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였다. 만일 어떤 불화나 소외감이 존재했다면 우리는 모두가 조화를 이루기까지 헤어질 수 없음을 느꼈다. 어떤 때는 곤란을 느낀 형제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기 위하여 은밀한 장소에 가서 간구하는 일이 있었으며 그들은 사랑 가운데 화해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평안의 안정된 심령이 우리 회중들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위에 비취고 있었다. 신자들의 얼굴은 하늘 빛으로 광채를 발했다. - 역사적 고찰, 213.

원수가 흉수처럼 밀려와 죄에 대한 생각으로 그대들을 삼키려 할 때에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나 자신이 죄인임을 잘 알고 있다. 만일 내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구세주께 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막 2:17)고 말씀하셨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런 길에 그대는 악한 자를 정복할 권능을 가질 것이다. 계속해서 위를 바라보라. 그러면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하나님의 보좌에 붙들어 댈 것이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2.10.11.

3월 11일 (목)

### 참된 진리에 기초를 둔 참된 사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고전 13:6].

나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새로운 오류를 범하는 자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할 필요를 보았다. 나는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한 자들이 여는 집회에 참석해서는 안 될 것을 보았는데 이는 그들이 인간의 계명을 교리로 삼아 가르칠 뿐 아니라 영혼들에게 치명적인 해독이 되는 오류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집회가 끼치는 감화는 좋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둠과 오류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으나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 준 그 자유 가운데 굳게 서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가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당신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집회에 참석하여 오류를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의지의 힘으로 사람을 휘어잡는 그러한 오류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천사들은 우리를 지키는 일을 그치게 되고 우리는 원수의 손아귀에 버려져 그와 그의 악한 천사들의 세력으로 압당해지고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두른 빛은 어둠으로 흐려지고 만다.

나는 우리가 허황한 이야기를 듣는 데 낭비할 시간이 없음을 보았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일에 쏠리는 대신에 현대 진리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우리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보다 철저한 지식과 성경에서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온유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거짓 교리들과 위험한 오류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한 이스라엘 집으로 하여금 주의 큰 날에 설 수 있게 준비시켜 주는 진리 가운데 거하기란 불가능하다. - 초기문집, 124, 125.

이 때에 각 영혼에게 이르러오고야 말 시험하는 진리,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찾는 자들이 실천해야 할 시험하는 진리를 억제하지 말라. 우리는 모든 임명받은 대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할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영혼들이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에서 기쁨을 찾도록 하며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수고하라. - 리뷰 앤드 헤럴드, 1909.9.9.

3월 12일 (금)

### 빛의 길을 걸음

“여호와와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이다” [시 25:10].

마치 그대가 땅에 묶여있는 것처럼 아래를 바라보지 말라. 그대의 믿음이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그 믿음을 뽑아버리지 않게 하라. 믿음은 우리의 감각이 알 수 없게 자라나며 원수가 그대를 흡입기를 좋아하는 곳으로 그대를 데리고 가려고 그의 힘을 결집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를 둘러쌀 것이며 그대는 위로부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의 기도가 투쟁에서 응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가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면 그대는 모든 축복을 갖고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그대가 그분을 찬양하므로 그대는 그분의 축복을 더욱 깨닫게 될 것이다.

“더욱 축복하심으로 나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주님께서는 나를 더욱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유용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빛의 진가를 평가하지 않을 동안은 두 번째 빛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은혜로 이미 주어진 빛에 대해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반사해야 한다. 그럴 때에 더욱 많은 빛이 우리 주위에 비출 것이며 우리가 찬양하므로 우리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 [잠 4:18]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그대가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지 않은 한 성령께서 임하실 때를 어떻게 알 것인가? 그대는 주님의 권면에 따라 한 계단씩 전진하면서 그대의 의무들을 행해야 한다. 그러면 그대는 빛과 평안과 기쁨을 갖게 됨을 발견할 것이며 그대의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멜로디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찬양을 하늘 합창단의 찬양과 섞을 것이며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하는 감사의 찬미를 노래하게 될 것이다. - 리뷰 앤드 해럴드, 1892.10.11.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큰 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앞길에 비추어 주는 빛의 광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 빛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그대는 나누어 줄 빛을 더욱 많이 받을 것이며 저희의 달란트를 적당히 사용하는 자들에게 큰 축복이 임할 것이다. - 대중회 회보, 1901.4.23.

3월 13일 (안)

### 모든 진리에 문을 열라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시 25:5].

성화를 주장하면서 죄를 탐지하는 율법의 빛을 여전히 받지 않을 사람들의 입장이 얼마나 위험한가! 성화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되어 있다. 오직 참으로 성화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 영문 시조, 1896.4.30.

그분의 영의 지도하심을 따르려고 신실하고 겸손하게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정신을 길러야 한다. 그대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자신의 지혜와 소위 분별력을 크게 불신해야 한다. 그대의 상황은 이러한 조심을 필요로 한다. 사람이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는 기껏해야 제한된 능력만을 지니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출생시에 품성의 강하고 연약한 점을 모두 받았는데, 그것들은 긍정적인 결합이다. 이러한 특질들은 전 생애를 색칠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사람들을 이끌어 자아를 살피도록 한다. 진리는 그들의 잘못과 기존의 과오를 그들로 깨닫게 한다. 심령은 이 잘못들을 보고, 깨닫고, 알기 위해 열려져야 하며, 예수님의 도움으로 각자는 그것들을 극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무리 부지런히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제한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열등한 것이다...

때로 어떤 행동의 노선이 매일 같이 계속 추구된다. 판단해 봐서 옳아서가 아니라 그저 습관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의무보다는 감정이 지배권을 쥔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극복할 필요가 있는 품성의 날카로운 특질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일이 너무도 많은 것을 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심령을 겸손하게 할 것이다. 무력한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매달으로써, 우리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강함으로, 우리의 허약함을 그분의 인내하는 힘으로 보충해야 한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는 참으로 세상에서 빛이 될 것이다. - 교회증언 4권, 360-362.

##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창조적인 능력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약 1:18].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의지로써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누어진 생명은 또한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지고 유지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마 4:4)아야 한다. - 교육, 126.

예수께서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다시 말해 그 식물이 어떻게 차갑고 어두운 땅이나 강 바닥의 진흙에서 피어 올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향기를 풍기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다. 누가 백합의 거친 갈색 구근(球根)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비와 햇빛 속에서 피어날 때, 사람들은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한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생명은, 비와 햇빛처럼 만민에게 무상의 축복이 되는 그분의 은혜의 봉사 사업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피어날 것이다. 꽃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바로 이 말씀이 그대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할 것이다. - 산상보훈, 97.

하나님께서서는 자기가 지으신 초목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분은 말씀으로 땅의 소산을 많게 하실 수도 있고 적게 하실 수도 있으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천연계는 당장 죽어 없어질 것이다.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온전히 그분께 의존한다. 그분은 천연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에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을 부여하셨다. 우리는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선물로 여겨야 하는데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에 과일을 주신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성경주석[*E.G. 화잇*] 1권, 1081.

그대의 품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매일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나타나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대를 통해 당신의 말씀이 가진 창조적 능력, 곧 우리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다른 영혼들을 재창조해 줄, 온유하고 설득력 있으면서도 강력한 감화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 산상보훈, 129.

## 참된 예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3, 24].

진리를 옹호하는 이론을 펴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진리의 가치를 가장 잘 말해주는 증거는 거룩한 생활이다. 이것이 없이는 가장 결정적인 말도 그 무게와 설득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은 거룩하신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죄는 우리의 힘과 지혜의 근원이신 분과 우리와의 이같은 거룩한 연합을 깨뜨린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이때를 위한 진리에 향하도록 해야 하며 만일 우리가 사업이 전진함을 알려면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 저주할 것이 없어야 함을 확신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힘이 법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었으며 오늘날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은 저들의 능력이 저들의 논쟁의 분명함이나 저들의 교리의 정당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탱된다 할지라도 그 주장하는 바가 율법과 진리를 믿는 저들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모든 요구에 순종하는데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추종자들의 은밀한 마음 속에 있는 진실을 요구하심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경고에 조심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받으실 만한 유일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에 기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늘의 권능의 도움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반대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왜냐하면 그분은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의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수 7:13]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 리뷰 앤드 해럴드, 1888.3.20.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봉사에 종속되어 있어야 한다. 시험은 우리 자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도록 각 방면으로부터 우리에게 제시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또한 이겨야 한다. - 리뷰 앤드 해럴드, 1892.7.5.

## 진리 안에서 행함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왕하 20:3].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에게 우리 눈을 확고하게 고정시킴으로 이루어진다. 주께서는 그의 길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뜻을 행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길을 좋아하는 자들, 그들의 사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어두움에 행할 것이다. 오, 불신이 얼마나 두려운가! 빛이 소경에게 임하고 이런 영혼들에게 진리가 제시될 때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며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교회 녹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훌륭한 교인들, 참으로 훌륭한 교인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와 사랑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영혼에게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의 불쾌하심과 심판이 저희 자신의 길을 걷기를 고집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들은 틀림없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기만에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주께서 이전의 시대에 저들에게 축복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택함 받은 참된 백성들이라고 자랑하며 저들은 경교와 교훈과 책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0.12.23.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면서도 믿음에 관해서는 많이 언급한다. 그러나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조건부로 이루어진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면, 만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걸어가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바를 구할 수 있으며 그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순종하고자 열렬하게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대들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고자 어떤 큰 기회를 기다리면서 게으르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앞길에 놓여있는 의무를 게을리 하지 말고 그대 주위에 열려 있는 작은 기회들을 이용해야 한다. -영문시조, 1890.6.16.

##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정직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 51:1, 2].

모든 하나님의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에게는 물론 동료 인간에게 대한 사람의 의무를 나타내 보여 주는 것이다. 세상 역사에 있어서, 오늘날과 같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로써 마음의 이기심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의 권리에 대하여 의심을 표명하거나 논쟁을 벌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에게서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도적질해 가는 일이 될 것이다. 감성과 지성과 영혼은 하나님의 뜻에 합병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언약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은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 구상하셨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의 권위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이다. -성경주석 E. G. 화이트 1권, 1120.

주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영생을 위한 품성을 완전하게 하도록 인간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셨으나 이기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는 자들, 그의 품성 속에 있는 모든 흠이나 결함을 크게 거론하는 자들은 그들로 생명의 거하는 곳으로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대들보를 그들 자신의 눈 속에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순결하고 진지하며 친절한 생각들과 행동들이 생애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거룩한 인애의 원칙들이 마음속에 거하여야 한다. 은밀히 행하거나 속이거나 우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기 위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다. 참소하는 자들이 그들 자신의 마음의 악을 발견하고 그의 죄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의 잘못을 자백하도록 느끼기까지는 그는 그의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도록 분명한 안목을 가질 수 없다. 우리 자신을 속이기는 쉬우나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오직 경건을 자랑하는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처럼 될 것이다. 하늘의 원칙들이 마음속에 짜들어가지 않는 한 모든 외적인 공언은 허식과 기만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경건을 그의 동기로 측정하신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2.8.16.

3월 18일 (목)

### 거짓의 흔적이 없음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꾀술을 말하느니라” [잠 12:17].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시기 직전인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와 큰 날에 설 백성을 준비시킬 열렬한 인물들을 부르신다. 책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다년간 세월을 보낸 사람들은 저들의 생애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가장 긴요한 열렬한 봉사의 정신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저들은 단순하고 정직한 증언을 전하지 않는다. - *노트북 리플렛* 1권, 104.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무수한 형태의 모든 기만은 사단의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라도 올바른 진리의 노선에서 떠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사단의 권세에 팔아 넘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 (엡 5:11)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말에 있어서도 단순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니 이는 저희가 그 입에 거짓이 없는 거룩한 자들과 교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까닭이다 (계 14:5 참조). - *선지자와 왕*, 252.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추구하기에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왜냐하면 그 확실한 결과로서 그것은 평강과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입술을 항상 지키므로 어떠한 꾀술이라도 말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재해와 타락과 불행은 방지할 수 있겠는가! 만일 우리가 죄를 견책하는 외에 상심케 하는 말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오해와 고통과 고민을 방지할 것인가! 만일 우리가 유쾌한 말과 하나님께 있는 소망과 믿음의 말을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빛을 다른 사람들의 길에 비추어 더욱 찬란한 빛이 우리 자신의 마음에 반향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미덕과 건강과 행복의 길이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구원의 경륜은 인류가 하늘의 은총을 향유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균일한 장래의 생명을 누림은 물론 지상에서라도 행복을 누리며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영감적인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조건에 응할 때마다 주께서는 당신의 약속들을 확실히 성취하실 것이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83.10.16.

3월 19일 (금)

### 확실하고 신빙성 있는 약속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나와 거짓 혀는 눈 깜짝 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 12:19].

약속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약속을 한 사람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많은 사람이 약속을 하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의 마음을 우롱한다. 그런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의 배후에 계신다. 그는 항상 그의 언약을 마음에 갖고 계시며 그의 진리는 각 세대에 미친다. - *청년 지도자*, 1900.2.15.

진리는 마음에 감명을 주며 양심에 호감을 사게 한다. 그러나 인간들은 추측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이 왜 그렇게도 적은가? 목사들이나 유식한자들 가운데 그것을 믿는 자가 있느냐?”고 묻는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그들의 명성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진리에 순종하기를 거절한다. 그들은 구주를 따르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방해하도록 진리의 길에 불편한 것들을 허용한다. 그들은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 영생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함을 깨닫지 못한다.

하늘의 천사들은 유혹자와 유혹을 받는 자들 사이에 투쟁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생사를 가름하는 문제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저들 영혼들이 저울에서 흔들리고 있음을 아시며 순종과 불순종의 확실한 시험을 지켜보시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 그의 훌륭한 이름, 그의 명성, 그의 돈, 그의 재산, 그의 사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요 12:25]고 말씀하신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900.11.13.

예수님을 구속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자원하길 바라신다. 겸손과 진실한 순종의 길을 함께 걷자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 만일 우리가 끝없이 영원한 시대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택한다면 왜 우리는 지금 그분을 우리의 최선의 지혜로운 상담자로, 가장 사랑하며 신뢰하는 친구로 선택하지 않는가? - *영문시조*, 1887.3.17.



3월 20일 (안)

###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됨

“저희를 진리로 기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 17:17].

그대들 이웃 사람들의 생애를 바라보는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거기에서 그대는 불완전이 아니라 완전과 의와 인자와 자비와 진리를 볼 것이다. - 원고모음 7권, 153.

오류는 우리를 기록하게 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성화는 오류를 통하여 오지 않으며 진리를 믿음으로 임한다. 우리는 약속의 확실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 - 리뷰 앤드 해럴드, 1909.9.30.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 청중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생각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했다면 우리의 일상 생애의 말과 행동에 얼마나 큰 변화가 보여질 것인가! 경건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알기 위하여 매개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그 영혼의 성화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 무관심과 냉담함이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영적 향상은 율법에 내포되고 우리 주님의 교훈 속에 내포된 그 거룩한 원칙들을 실천하는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지식 여하에 달려 있다. - 영문시조, 1891.4.6.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를 식별할 믿음의 자질을 상세히 말해주며 당신의 피로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힘을 대속하신 분께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한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으나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은 자기를 섬기는 모든 것으로부터, 사람의 방자한 요구에 대한 모든 맹종으로부터 나오는 생애를 깨끗하게 한다. 그것이 정신과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진정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생애에 나타난다. - 리뷰 앤드 해럴드, 1909.9.30.

3월 21일 (일)

### 성화는 정결을 의미한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일 2:4].

사람들은 거룩함! 거룩함! 성화! 성화! 헌신! 헌신! 이라고 부르짖으면서도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경험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마치 죄인이 그의 타락한 성질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들의 심령의 결점을 숨기기 위하여 그들을 두르고 있는 소위 성화라는 말로 된 회칠한 이 복장을 미구에 벗겨 버리실 것이다.

사람들의 행위에 대하여 세밀한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높고 거룩하신 분의 눈에는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직접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들의 죄악적 행동을 가리워 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노라고 공언한다. 거룩함에 대한 이와 같은 공언은 그들의 매일의 생애에 그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고상하게 하는 경향을 주지 못한다. - 교회증언 1권, 336.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명령의 유력한 역사를 통하여 품성의 변화를 산출한다. 그들의 모든 힘과 함께하는 이기심과 교만은, 저희를 죄악적인 것으로 지적해 주는 것은 무엇이나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인내하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 아주 낮은 위치에 서야 할 것이다. 영혼의 통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각 사람의 경험의 특징이 될 것이다. - 리뷰 앤드 해럴드, 1897.2.23.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읽음으로 불붙게 될 때, 우리가 시편기자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 119:18]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보혈의 공로를 요구하는 위치에 있게 될 것이며 진리를 믿음으로 임하는 성화를 위해 당신의 아버지께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기도에 온전히 매달릴 수 있게 된다. - 영문시조, 1875.7.22.

성화는 순결함을 의미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다. 오직 이럴 때 만이 그들은 진리를 선포함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업을 행할 자격이 될 수 있다. - 원고모음 4권, 355.

참된 성화는 즐겨 순종함으로 온다. - 원고모음 5권, 123.

## 순결한 진리는 능력을 가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앎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앎음을 인함이니라” [요일 2:21].

진리 가운데는 거짓이 없다. 만일 우리가 교묘하게 꾸며 낸 이야기를 따르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원수의 세력에 합세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간 인간이 만든 명예를 메고 온 사람들이 그 명예를 깨고 이 이상 더 인간의 속박된 중들이 되지 않기를 요구하신다.

싸움은 진행 중에 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모든 불의한 속임수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악한 영들은 진리에서 영혼들을 이탈시키며 의에서 떠나게 하고 온 우주에 파멸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저들은 영혼들을 생포하기 위하여 허다한 기만술을 펴는 데 있어 놀라운 근면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저들의 노력은 실 사이가 없다. 원수는 언제나 불신과 회의주의로 영혼들을 이끌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사단은 하나님을 없애려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육신이 되사 우리들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우리들이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가르치신 그리스도까지 없애려 하고 있다.

온갖 악의 형태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면서 기다리고 있다. 아침, 저녁, 유인 및 놀라운 승진에 대한 약속 등이 주도면밀하게 사용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악에 대항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라는 말씀의 방책(防柵)을 쌓아 올리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원수의 대리자들은 진리에 대항하여 이기기 위해서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 주님의 양떼를 지키는 성실한 보호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파수꾼들은 어디에 있는가?... 의료 선교사들은 어디에 있는가? 저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역하고 있으며 주님의 명예를 메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명예를 메고 있는가? - 특별증언B-2-12, 13.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된 것을 주장하고,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진리를 받도록 간구하여야 하며, 우리의 진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그 때 남녀들은 회개하게 될 것이며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선교 사업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적 권위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 영문시조, 1901.8.21.

## 참된 사랑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 3:18].

모든 이기심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죄를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칭지기들로서 우리 형제들에게 냉담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사랑은 압제나 빈곤이나 고통이나 시험을 당하는 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동정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행동은 성화의 열매들이다. 만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빛을 받으며 확실한 축복들을 나누어야 할 기회를 기다리거나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하면서 어떤 큰 일들을 행했다고 느끼지는 앎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친절한 모든 행동을 마치 그분 자신에게 행한 것처럼 간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규범대로 행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그가 그 자신의 관심들을 돌보는 것처럼 그의 형제들의 관심들을 돌볼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나타낸 진정한 경건은 자량하며 공언하는 모든 태도보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읽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일 3:22]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행위를 촉진시키는 동기들을 우리는 얼마나 주의 깊게 시험해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선천적인 마음의 경향을 따른다면 비록 입술이 우리가 온전히 주의 것이라고 선언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다. 성경이 우리 앞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거울을 들여다 보라. 그러면 우리의 행실들과 계획들이 거룩한지를 알게 된다.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길인가?” 물어보자. 만일 우리가 우리 형제나 이웃에게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상처를 준 사람을 대면해야 할 것이다. 아무도 믿음에 차별을 둬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게을리 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할 것이다... 거룩한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생애의 안내자가 되는가? 만일 그렇다면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그렇다, 이 천국이 이곳 땅에서도 우리의 생애 속에 들어오게 된다. - 청년 지도자, 1897.12.9.

## “진리로 허리 띠를 띠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엡 6:14].

그리스도는 빈틈이 없는 분이셨으며 침착한 가운데 남들에게 비범한 동정을 베풀었다. 그분은 조용히 또 끈기 있게 참으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은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뒤를 밟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거칠고 무례한 자들이 비난을 퍼부어도 그분께서 잠잠히 계심을 보고 그들은 그분을 믿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반겼던 바로 그 사람들의 음험하고 기만적인 반대를 끊임없이 직면해야 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대적들이 그분을 해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난 광적인 소동 가운데서도 그분은 언제나 침착하셨다. 그들의 분노와 악의는 그들이 무슨 정신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조롱을 받고 냉대를 받으셨어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셨다. 사람들의 욕설이 당신께 쏟아져도 당신께서는 그 욕을 되돌리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결코 예의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않으셨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늘의 왕이시요 영광의 왕이 아니신가? 그의 반대자들에 의해 그를 공격하는 폭풍이 일어났으나 그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 그는 평정을 취하실 수 있으셨는데 이는 그가 살아있는 진리의 화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 진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구하며, 그의 교훈들을 실행하여야만 한다. 그대는 하늘 왕의 자녀들이며 만주의 여호와와 아들과 딸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비록 거짓을 지지하는 권세로 움직여지는 자들의 모임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조용한 평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저들이 소유한 가장 좋은 무기들이나, 아무리 저들이 그것을 잘못 나타냄으로 어렵게 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진리를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존귀하심을 드러내거나 그분의 최상권을 보여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말씀과 행동은 그분의 사명과 품성의 지식을 그분이 갖고 계심을 보여주었다. —영문시조, 1987. 6. 24.

## 진리로 무장하고 싸우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시 43:3].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참으로 형제들처럼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 된다. 참된 각 신자는 새벽별되신 주님의 광채를 붙잡고 흑암가운데 앉은 자들에게 빛을 전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이웃들에 있는 흑암 가운데 빛을 발산할 뿐만 아니라 한 교회로서 지경 저편으로 빛을 전한다. 주께서는 각 사람이 그의 의무를 행하기를 기대하신다. 교회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새벽별의 광채를 발하고 세상의 빛이 된다.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업에 협력해야 한다.

교회들은 그들이 교육을 받아야 할 만큼 함께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려 모이는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성경을 펴기 위하여 목사들을 의존하도록 교육을 받아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위해 일하려 나갈 백성을 갖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도록 임명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에 있게 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 속에 살아있는, 내주하는 요소가 되었다면 크신 교사의 계명에 무관심하며 서로 물고 상처를 주는 형제들 가운데 사랑이 있었을 것이며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우정을 나누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형편으로 각 환경을 만드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맞붙어 흑암하게 싸워야 할 전투를 갖고 있으나 이 전투는 그들 형제들을 대적하는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중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조차 그 감화력에 상처를 주고 연약하게 하며 그 감화력을 파괴하는 모든 자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감화력을 약화시키기를 바라는 자들로서 하늘 책에 기록된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 정렬하는 악의 동맹체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형제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싸울 도구가 되는 자들에게 화가 임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천사들과 연합하여 싸우고 천사들이 전쟁에 임하도록 하심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신다. —내방선교, 1896.8.1.

##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를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시 60:4].

셋째천사의 기별을 듣고 받아들인 각 사람은 흠이 없고 정결한 진리의 깃발을 붙잡고 높이 그리고 더욱 높이 들어 올려야 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위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포도원으로서 밭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으나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 우리 백성들 가운데 각 개인은 물론, 각 조직은 큰 음성으로 세상에 경고의 마지막 기별을 주어야 할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다. 강하고 결정적인 호소가 바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 원고모음 14권, 160.

그리스도의 후계자이신 성령께서는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무장시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도록 당신의 도구들을 조직하신다. 그분은 안수함으로 성직에 성별함을 받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도 당신의 사업장으로 보내신다. 이런 일하는 방법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그들이 일어나기 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론들에 대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을 아신다. 그분은 모든 부족을 아시며 미리 아시고 모든 비상사태를 위해 준비하신다. - 내방선교, 1896.8.1.

참된 선교 사업은 교회에 튼튼한 기초를 세울 것이려니와 이 기초에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딤후 2:19]는 인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감찰 아래서 그 사업은 진행될 것이고 그 사업이 참되다는 증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드러날 것이다. 사역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거룩하고 고상한 사업, 모든 일에 설계자와 건설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사역자들은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공언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자라야 한다. 그들은 진리에 의해 성화되어야 한다. 설교에서는 물론 실천된 진리는 품성을 순결케 하는 감화를 끼치기 때문이다. - 영문 시조, 1901. 8. 21.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고 새겨진 깃발을 높이 쳐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중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도외시하여서는 안 된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913.6.12.

##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시 57:9, 10].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씨를 심도록 위탁하셨으며 우리 신자들에게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할 사업의 중대성을 역설하는 책임을 위탁하셨다. 큰 길과 골목길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인간의 심령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한다.

이 생명의 말씀인 진리를 가진 모든 자들이 진리를 갖지 못한 자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힘써 노력한다면 얼마나 크고 훌륭한 사업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사마리아 여인에 따라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왔을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저들을 가리켜 추수하게 된 밭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진리를 갈망함으로 저들과 함께 이틀 동안 그 곳에 유하였다. 그 때에 얼마나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을는지 상상해 보라! 이틀 동안의 수고의 결과로써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요 4:41) 졌다. 저들의 간증은 이러하였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줄 앎이니라 하였더라” (요 4:42).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누가 지식이 없어 멸망하여 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할 것인가? 이 세상은 경고를 받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헌신적이며 충성되고 끈질긴 노력을 필요로 하는 많은 지역들을 나에게 지시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큰 도시에 사는 많은 시민들의 마음과 정신을 열어주신다. 이러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령한 접근을 이루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려고 노력한다면 선한 감동을 끼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스도와 우리 동료들과 더불어 깊이 연합해야 할 것이다. 크고 작은 도시들과 원근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되 현명하게 일해야 할 것이다. 결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당신의 영광 일치하여 일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올바른 감명을 끼치실 것이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913.6.12.

## 각 기회를 붙잡으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 붙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속 8:16].

우리는 현대진리가 들어있는 모든 분야의 인쇄물을 기록한 보물로 취급하여야 한다. 팜플렛이나 정기 간행물 쪽지까지라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셋째천사의 기별의 진리가 들어있는 찢어진 종이 한 장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마음에 끼치게 될 감화를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나눠 주는 모든 책과 잡지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리뷰 앤드 헤럴드, 1903.8.27.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권한다.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대의 성경을 펴서 그들에게 성경의 위대한 진리를 소개하라. 그대의 성공은 그대의 지식이나 학력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대의 능력에 달려있다. 사람들과 친근히 교제함으로써 가장 유능한 강연보다 더 쉽게 사람들의 사상의 방향을 돌이키게 할 수 있다.

인쇄물들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읽어 보도록 요청하라. 그대가 성실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 그대의 어떤 활동도 떨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완고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한 길이 있다. 단순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접근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그들의 영혼과 접근하는 데 우리를 도와 줄 것이다.

이용 못 하고 지나가는 기회가 없게 하라. 그대에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동정과 친절로 그들의 마음에 접근하기 위하여 노력하라.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친절한 관심을 보여 주라.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편안하게 해줄 어떤 일을 하라. 이런 방법으로 그대는 그들의 마음과 접촉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오직 영원만이 그러한 일이 얼마나 영향을 멀리 미칠 것인지 나타내어 줄 것이다.

이 일을 하지 않는 자들과, 어떤 사람들이 나타낸 무관심으로 행동하는 자들은 머지않아 그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형제들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정죄할 것이다.

진리를 가지고 영혼들을 찾으러 주님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바칠 때, 그들은 점점 더 생기를 얻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펴 주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오늘의 나의 생애, 233.

## 자급 선교사들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잠 14:22].

자급 선교사들은 때때로 매우 성공적이다. 작고 보잘것 없는 방법으로 시작하지만 그들의 사업은 하나님의 영의 지도 아래 그들이 전진함에 따라 확장된다. 둘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이 전도 사업에 함께 나가게 하라. 그들은 그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선두에 있는 자들로부터 어떤 특별한 격려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기도하고, 노래하고, 가르치고, 진리를 실천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들은 문서 전도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이 방법으로 그들은 많은 가정으로 진리가 들어가게 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사업에서 전진할 때 복된 경험을 얻게 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속절없는 상태를 알고 겸비해져 있지만,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기 때문에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그들은 은총과 도움을 발견한다. 심지어 이 현실적인 선교사들의 빈곤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그들의 길을 지나갈 때 그들은 그들이 영적 양식을 가져다주는 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받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기별을 증거하게 되고, 그들의 노력은 성공으로 관 씩워진다. 이 겸손한 교사들이 아니었으면 결코 그리스도께서 인도되지 못했을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희어져 추수하게 된 들판으로 들어가도록 일꾼들을 부르신다. 우리는 재정이 고갈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금 일터에 있는 일꾼들을 지원하기에 너무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다릴 것인가? 믿음으로 전진하라. 하나님께서 그대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 126:6)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

성공만큼 성공적인 것은 없다. 꾸준한 노력으로 이것을 얻도록 하자. 그러면 사업은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새 지역들이 열려질 것이다. 많은 영혼들이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될 것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증가되는 것이다. -교회증언 7권, 23, 24.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녀들은 그들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며 주께서는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들이 자신들을 주님과 바른 관계에 둬므로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빛이 그들 위에 임할 것이며 그들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2.8.26.

3월 30일 (화)

### 지금과 영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다” [시 117:2].

사도 시대 이후의 여러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결코 그치지 않았다. 우리가 그 세기들을 회고할 때에 오류와 미신의 어두움을 뚫고 쏟아져 나오는 빛처럼 빛나는 산 돌들을 볼 수 있다. 영원을 통하여 이 귀중한 보석들은 점점 빛을 밝게 비추어졌고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을 증거할 것이다. 이 닦은 돌들의 번쩍이는 빛은 빛과 어두움, 진리의 금과 오류의 찌꺼기 사이의 현저한 대조를 나타낸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 그리고 그 때 이래로 산 모든 의인들은 성전 건축에 그들의 역할을 행하였다. 그러나 건물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생명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고, 남녀들을 거룩함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기초 위에 오래 견딜 재료를 가져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는 현명한 건축자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사도들에 대하여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막 16:20)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내어 보내신 것처럼 오늘날도 당신의 교회의 교인들을 내어 보내신다. 사도들이 가졌던 동일한 능력은 그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능력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실 것이며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한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보좌,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부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품성을 대표할 대리자들 만큼 구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없다. 인간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없다. 온 하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교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남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도 행적, 598-600.

3월 31일 (수)

### 진리를 제시함의 상급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사 26:2].

예수님께서서는 불꽃에 싸여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면서 그분의 은나팔을 부셨다. 그분께서는 자는 성도들의 무덤을 바라보신 후 당신의 눈과 손을 하늘로 향하시고, “티끌 속에서 자는 자여,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그리고 일어나라”고 부르짖으셨다.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났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불멸을 옷 입고 나왔다. 14만 4천 명은 죽음으로 헤어졌던 친구들을 확인하게 되자, “할렐루야”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우리는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졌다.

우리는 모두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바다까지 올라가는데 7일이 걸렸다. 그 때, 예수님께서서 면류관들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머리에 씌워 주셨다. 그분께서는 금겨문고와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주셨다. 이 곳 우리바다 위에 14만 4천 명이 정방형으로 서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다지 빛이 나지 않는 면류관을 받았다. 어떤 면류관들은 별이 많아 무거워 보였고, 또 어떤 것들은 별이 조금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면류관에 완전히 만족해 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어깨에서 발에까지 이르는 빛나는 흰옷을 입었다. 우리가 우리 바다 위를 통하여 성문으로 행진할 때, 천사들은 내내 우리 주위에 둘러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강하고 빛나는 손을 드셔서 진주문을 붙드시고, 빛나는 돌짜귀에 달려 있는 그 문을 열어 제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나의 피로 너희 두루마기를 빨았고 나의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섰으므로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모두 안으로 행진해 들어갔다. 우리는 그 곳으로 몇몇하게 들어갈 권리가 있는 것으로 느꼈다.

성 안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보좌에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왔으며, 강 좌우 편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나무의 한 줄기는 강 이편에 있었고 한 줄기는 저편에 있었는데, 둘 다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처음에, 나는 두 나무를 본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보았을 때, 그것들은 위가 연결된 한 나무임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생명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였다. 그 가지들은 우리가 서 있는 곳까지 늘어져 있었다. 그 열매는 빛나는 것이었고, 금과 은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교회증언 1권, 60, 61.

4월 1일 (목)

### 열들을 부르심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들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눅 6:13].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유대 산헤드린의 학식 있는 자들이나 웅변가 혹은 로마의 권력을 택하지 않으셨다. 대주제께서는 세상을 움직일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독선적인 유대 교사들을 제쳐놓으시고,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분은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들로 훈련하시고 교육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 복음 기별을 주어 내보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였다. 인간의 능력이거나 인간의 지혜로써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였다.

삼년 반 동안 제자들은 이제까지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교사의 교육을 받았다. 개인적인 교제와 감화로써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사업을 위한 일꾼들로 훈련하셨다. 날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걷고 대화하면서, 피곤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병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능력의 현현(顯現)을 보았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 혹은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승천 후 지상에서의 당신의 사업을 수행할 교회의 조직을 위한 제일보로써 열두 제자를 안수하셨다...

그 감동적인 광경을 바라보라. 당신께서 택하신 열두 제자에게 둘러싸인 하늘의 왕을 바라보라. 그분은 그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려고 하신다. 이 연약한 대리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분은 모든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곳에 구원을 두 시려고 하신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셨다.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들로부터 하늘의 빛이 비쳐 나갈 것과 그들이 당신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 말이 종말까지 세대 세대를 거쳐 울려 퍼질 것을 아셨다. - 사도행적, 17-19.

4월 2일 (금)

### 복음을 섬기는 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혹은 사도로... 주셨으니” [엡 4:8, 11].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에서도 봉사하시지만 당신의 대리자들을 통해 지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에서도 봉사하신다. 그분은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게 지상에서 활동하시던 때 처럼 그들을 통해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신다. 비록 세대는 흘러갔지만, 그 시간의 경과와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의 약속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승천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진리의 교사들이 되었다. 참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부목자인 대리자들을 통해 그분의 사업을 지도하신다. 그러므로 말씀과 교훈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간청한다.

백성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한낱 공중 설교자나 연사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지혜와 권세를 교회의 큰 머리 되신 분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여겨야 한다. - 복음 사역자[1892], 11.

모든 사람들이, 각각 연결되어 하나의 완전한 전체로서 연합된, 교리의 형태를 알고 진리의 사슬을 깨닫기 위해서 이론적인 설교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시된 진리를 실제적으로 적용시킴이 없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리는 예 하다가 아니오가 아니라 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감명시켜 주는 일 없이, 복음의 기초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못 박힘을 나타내지 않고는 어떤 설교도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진리의 이론이 제시된 후, 수고해야 할 사업의 분야가 오게 된다. 백성들은 그들의 매일의 생애에 관련된 실제적인 진리에 대하여 교훈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죄인들이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느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그분이 행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 것은 그들 앞에 가장 감명 깊은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복음 사역자[1892], 12, 13.

## 성벽 위에 파수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고전 12:28].

옛적에 예루살렘과 다른 도시의 성벽에 배치된 파수꾼들은 가장 책임이 중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이 그들의 성실함에 달려 있었다. 위험이 감지될 때, 그들은 낮이나 밤이나 간에 침묵을 지키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는지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 순간마다 그들은 소리를 질러 서로를 부를 책임이 있었다. 보초들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거점들을 살필 수 있는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고, 경고의 외침이나 용기를 고취시키는 것들이 그들로부터 울려 나왔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이에게로, 반복되는 말을 통해 도시의 모든 부분을 감찰 때까지 옮겨졌다.

이 파수꾼들은, 영혼들의 구원이 그들의 충성심에 달려 있는 목사들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은 시온의 성벽에 파수꾼처럼 서야 하며, 전쟁이 오는 것을 보면 그들은 경고의 말을 발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줄고 있는 파수꾼이 되어, 그들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서 보고도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면, 백성들은 패망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실 것이다. - 복음 사역자, 21, 22.

그들이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생애하고 당신의 성령의 감화에 매우 민감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남녀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안전한 장소를 지적하도록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시온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들의 특권이다. 파수꾼들은 범죄의 분명한 결과에 대하여 충실하게 경고해야 하며 교회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어느 때라도 그들은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다. 그들의 일은 신체의 모든 기능의 사용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들의 음성은 나팔의 음조가 되어 높이 올라가야 하며 결코 동요하거나 불확실한 소리를 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일하는 것은 샅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깨닫고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헌신의 피로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남녀들을 압박한 멸망에서 구원하여야 한다. - 복음 사역자[1892], 21, 22.

## 가장 겸손한 종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 20:25-28].

그분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오셨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즐겁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어떤 명성도 얻고자 하지 않으셨으며, 오직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선을 행하는 일로 생애를 보내셨다. 그분은 땅 위에서 안일과 풍족 중에 인생을 보내실 수 있었으며,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즐기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고, 선을 행하며 고통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사셨으니 그분의 모본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 교회증언 3권, 54.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으로 자처하는 모든 자들은 형제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대신에 기꺼이 모든 형제들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며 친절하고 예의 있는 정신을 철저히 고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만일 자기가 잘 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히 고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생각만으로는 자백하지 않은 과오에 대한 평계가 되지 않는다. 자백은 교역자들에 대한 교회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좋은 본이 되어 교회에 힘을 주고 그 결과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할 것이다. 진리의 교사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와 성령의 진리로 이끌기 위하여 친절한 정신을 가져야 하며 경건함과 운유와 겸손과 친절한 정신을 갖는 일에 모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순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항상 영감으로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그는 그의 양떼들을 보호하는 일이 자기에게 위탁되어 있음을 명심하고 그들의 형편을 그리스도 앞에 아뢰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탄원하시는 것처럼 그도 그들을 위하여 간구해야 할 것이다. - 초기문집, 102, 103.

[목사들은] 책임을 회피한데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설교하지 않고 그들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킨다면, 그들은 양무리는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이다. - 성경 주석[E. G. 화잇] 4권, 1164.



## 전적인 관심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인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딤후전 4, 14, 15].

그리스도의 목사들이 그들의 일에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기심 없이 사업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의 관심은 나뉘어 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 이생의 걱정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목사의 일이 얼마나 신성한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런 자들이 흠과 큰 불신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 불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전적이며 온전한 헌신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 섬기며, 자신들은 많이 섬긴다. 그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하늘의 왕은 지상 봉사에서 그분의 아버지께 기도를 많이 하였다. 그분은 자주 철야기도를 하셨다. 그는 이 세상에 있는 암흑의 세력을 느낄 때에 자주 슬픈 마음이 들어서 복잡한 도시와 소란스런 군중을 떠나 간구할 조용한 장소를 찾으셨다. 감람산은 하나님의 아들이 좋아하는 기도처였다. 밤이 되어 무리가 그를 떠날 때면, 그는 하루 종일 지켰지만 쉬지 않는 밤이 잤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는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요 7:53; 8:1) 도시가 정적에 싸이고 제자들은 잠을 청하려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께서는 주무시지 않으셨다. 감람산으로부터 그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매일 당하는 악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기를 그리고 내일의 의무와 시련을 위하여 그분 자신의 영혼이 강화되고 다져지기를 구하는 거룩한 간구가 그분의 아버지께로 올라갔다. 그분의 제자들이 자는 동안 밤새도록 그들의 거룩한 교사는 기도하고 계셨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그분에게 밤이슬과 서리가 내렸다. 그분의 모본은 제자들을 위하여 주어졌다. -교회증언 2권, 507, 508.

## 이 부르심의 증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고후 3:5, 6].

진리를 통하여 죄인들이 회개하고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목사직에 부르셨다는, 목사가 지닐 수 있는 최대의 증거이다. 그가 사도라는 증거는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새로워진 생애가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형성되어 계신다. 목사는 그의 봉사에 대한 이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크게 힘을 얻는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목사들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수고에 대하여 증거한 것과 동일한 증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있을지라도 능력 있고 거룩한 목사들, 곧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있었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크게 부족하다. 교만, 자신(自信), 세상에 대한 애착심, 험담, 신랄함, 시기심은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이다. 구주의 생애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그들의 생애는 종종 사람들이 그의 목회 활동을 통하여 회개하였던 그같은 봉사의 성격에 대하여 슬픈 증언을 한다.

사람이 복음의 유능한 목사로서 하나님께 가납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주께서 당신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능력과 성공으로 축복하신 사람들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는 아무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야 함을 인정한다. -사도행적, 328.

목사가 되는 소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겸비케 하고 그리스도께 배워야 한다. 그러면 참된 교사가 될 것이다. 만일 목사의 입술이 제단에서 취한 술으로 정결케 된다면 그는 예수를 죄인을 위한 유일한 소망으로 높일 것이다. 설교자의 마음이 진리를 통해 성결케 되면, 그의 말씀은 자신에게와 남들에게 살아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에게 들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가 열렬하고 진지한 기도를 통하여 그분께 가까이 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의 영혼이 살아 있는 하늘의 불을 느꼈으며, 그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릴 능력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들은 깨어질 것이며 많은 이들이 문의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리뷰 앤드 헤럴드, 1902.4.15.

4월 7일 (수)

### 신사의 표징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전 4:9].

기독교의 초기의... 헌신적인 사신들은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훼손시키는 자만적인 생각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권위나 탁월성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사도행적, 209.

바울은 공식적인 안수를 받은 것을 그의 평생의 사업의 새롭고 중요한 신기원을 여는 표로 삼았다. 그가 후에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의 사도직의 시작을 기산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사도행적, 164, 165.

바울은 그의 수고로 열룩진 손을 높이 들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호소한다: “너희 이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그 손들은 놀랄만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 바울은 이적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는 그의 생활태도를 그들이 알게 호소하고 있다. 그 위대한 사도는 일을 부끄러워 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일이 자신의 목회사업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사물에 대한 질서를 변화시켰으며 사람들은 신사들 축에 끼려면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님의 목적은 인간들의 사상이나 목적과 같지 않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일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신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해 왔으며 재산을 모으고 그들은 그들의 돈이 그 아들들을 신사로 만들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많은 이런 사람들은 저희 아들들을 그들 자신이 훈련을 받고 열심히 유용한 노동을 하는 자로 훈련시키는데 실패한다. -리뷰 앤드 해럴드, 1900.3.13.

만일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고통과 궁핍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들로 하여금 상상 가운데 바울이 일하던 작업장을 방문하게 하라. 그들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사람이 장막을 만들 때 그가 사도로서 자신의 수고에 대하여 정당하게 양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있음을 마음에 기억하게 하라. -사도행적, 352.

4월 8일 (목)

### 오해와 비방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고전 4:10].

고린도인들 가운데는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모든 노력에 완강히 저항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으나 그들의 행동은 아무도 그들 자신을 속일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 그들은 가장 비열한 정신을 나타냈으며 그들은 대담하게도 바울을 공공연히 비난하고 그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한다고 고소했다. 그들은 자선 사업을 목적으로 형제들에게 모금한 재물로부터 개인적인 이득을 받고 있다고 그를 책망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사도직에 대한 그의 주장에 도전했으나 그는 자선금을 모으고 있는 교회들로부터 부양료를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그의 적대자들의 참소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으며 근거가 없는 것들이었다.

바로 이런 부당한 사람들을 우리 시대에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 자신이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하나님의 사업 발전을 가로막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교회의 몸과 일치하기를 거절하며 그들 형제들의 품성을 분석하고 어두운 의심들을 생기게 하며 은근한 비평을 암시하는 말들을 퍼뜨리는 것이 그들의 하는 일이다...

사도는 교회들을 걱정하는 그의 고통을 언급한다. 그가 거의 감당할 수 없는 그토록 큰 고통에 때때로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외적인 위험과 내적인 염려는 그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거짓 교사들은 그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 형제들에게 편견을 조장했으며 그들은 그가 세운 교회들 가운데 그의 감화력을 파괴하기 위하여 거짓된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 모든 핍박과 낙담 가운데서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위로로 기뻐할 수 있었다.

그의 양심은 그의 신뢰에 불성실이나 불충실함으로 그를 고발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고 목회에 수고하며 그의 선천적인 용변을 사 용하거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음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단순함과 정결함으로 그의 유일한 목표가 영혼들의 선함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기쁨을 주게 했다. -바울의 생애, 177-179.

## 믿음의 용사의 생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고전 4:11-13].

계속적인 반대의 폭풍우와 원수들의 부르짖음과 동지들의 저버림 가운데서 담대한 사도 [바울]도 거의 낙심하였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돌아보고 새로운 열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는 일에 전진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먼저 밟으신 피뎀은 길을 밟고 가는데 불과하였다. 그는 구주의 발아래서 그의 갑옷을 벗을 때까지 싸움에서 물러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사도들이 그들의 봉사를 그친 지 18세기 이상이 흘러갔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그들의 수고와 희생의 역사는 여전히 교회의 가장 귀중한 보화들이다. 성령의 지도하에 쓰여진 이 역사가 기록된 것은 각 시대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구주의 사업에 더욱 열심과 열성을 촉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믿음의 용사는 오늘날 목회자의 대열을 이루고 있는 방종과 안이함을 좋아하는 자들 위에 어떻게 우뚝 서 있는가! 평상시 생애의 고통과 시련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험악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무엇을 행해 왔고 또한 고통을 당했던가? 이 위대한 사도와 비교할 때 그들의 기록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들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무슨 영혼의 부담을 느껴왔는가? 그들은 극기나 희생을 조금 밖에 모른다. 그들은 그들이 소유한 품성의 모든 탁월함과 그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에 대해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을 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반대나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위축되거나 그들의 용기가 꺾이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조력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은 모든 원수를 저항할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사도를 지칠 줄 모르게 강권했던 동일한 책임이 그들에게 놓여있다. 오직 그의 충성을 열심히 배우는 자들만이 그와 함께 생명의 면류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 바울의 생애, 148-149.

## 목사의 생애

“우리가 이 직책이 회망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간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기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후 6:3-10].

추수를 고대하면서 세상의 황무지에 진리의 씨를 심으러 나아가는 당신의 목사들보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욱 소중한 사람들은 없다. 당신의 종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을 때의 그 열망을 측정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뿐 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 영혼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죄에서 떠나 의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위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기꺼이 그들의 농장과 직업과, 필요하다면 그들의 가족까지라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응답을 받을 것이다.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잃어버린 사람들의 요구에 감동을 받아 이상승배자들과 야만인들 중에 자비의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안락한 가정과 친구들과의 교제와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 중도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을 잃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 그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업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였고 슬픔 중에 뿌린 씨는 많은 수확을 가져왔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널리 퍼졌고 십자가의 깃발은 이방 나라들에 세워졌다.

죄인 한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목사는 그의 재능을 전부 바쳐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아흔아홉을 떠나셨다면, 우리가 그보다 적은 일을 하고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 - 사도행적, 369, 370.

## 바울의 힘의 비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 없는 말을 하거나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대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 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기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후 11:23-28].

이 땅에 있었던 제자 중에 바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 강렬하고 끈기있으며 정력적인 제자는 없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손으로 여겼다. 그는 그 앞에 오직 한 목표를 갖고 있었으며 그것은 멸망해 가는 영혼들에게 구속의 기쁜 소식을 그의 입술로 전해야 한다는 것과 그들이 세상의 구속주에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온 영혼은 예수님께 몸을 숨기고 모든 빛의 근원되신 이로부터 받은 진리의 빛 속에 감춰져 있었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88.9.11.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거룩한 임무에 대한 배반과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아니겠는가?

진실한 목사의 마음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으로 가득차 있다. 시간과 힘이 투자되고 수고로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자신의 영혼에 그와 같은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을 가져온 진리를 들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그에게 임하신다. 그는 영혼들을 그가 반드시 찾아야 할 사람들처럼 바라본다. 그는 갈바리의 십자가에 그의 눈을 고정시켜, 높이 달린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분께서 끝까지 그의 방패와 힘과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시리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 섞인 초청과 호소로써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그를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계 17:14)로 계수한다. - 사도행적, 370, 371.

## 오직 전도하는 것이 유일한 길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엡 3:5-7].

만일, 이 거룩한 [목회의] 직분에 참여한 자가 헌신과 극기를 가장 적게 하는 일을 택하여, 다만 강단 위에서 설교만 하고 개인 전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그 사람의 활동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바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기까지 한 영혼들이 개인 전도의 결핍으로 인하여 멸망하여 간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도 목자들이 하여야 할 개인 전도를 기뻐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는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한 자이다.

신령한 직분에 부름 받은 자들은 반석위에 떨어져 깨어져야 하며 주께서는 그들 위에 당신의 각인을 찍으시고 존귀로 통하는 그릇을 삼으실 것이다. 만일 목회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모든 나라들에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업이 행해짐을 보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는 헌신한 자들을 부르신다. 하늘 천사들의 사업은 끊기 있고 열렬할 것이며 이는 그들이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열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목사들이 수고해야 할 태도이다. 그들의 기별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 22:17]는 것이 되어야 한다. 천사들의 봉사를 통해 그들은 어느 영혼을 내쫓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들 모두를 모을 것이며 만일 복음 기별이 모든 사람에게 가야 한다면 인간 대리자들은 천사 사역자들과 연합해야 한다. 신성과 인성은 잃은 영혼들의 큰 구원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결합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 자신이 일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결정적인 협력없이는 그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대리자들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해 적합하게 되어야 하며 그들의 성장과 교육은 하나님의 능력과의 그들의 연합에 의존되어 있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2.8.30.

## 선한 사업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딤펴전 3:1].

목회는 열등한 것이 아니다. 목회를 왜소하게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왜소하게 만들고 있다. 여러 사업 중에서 목회는 최상의 일이다. 젊은이들에게 복음 목회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는 사업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상기시키도록 하라.

젊은이들이 목회에 투신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열렬한 주장들을 통하여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길로부터 떠나게 될 위험이 있다. 목회에 투신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람들이 의학을 공부하도록 격려 받은 일이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더 많이 요구하신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다. “전초 기지를 강화하라. 세계 도처에 충성된 파수꾼을 세우라.” 젊은이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신다. 그분께서는 마음이 넓고 생각이 크고 그리스도와 진리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는 젊은이들의 군대를 요구하신다.

능력이나 학문의 정도는 그대가 일에 임하는 정신보다는 훨씬 덜 중요하다. 목회에 필요한 것은 위대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며, 유창한 설교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분께 바쳐서 성령의 능력을 입을 사람들을 원하신다. 그리스도와 인류의 사업은 성화된 사람, 자아 희생적인 사람들을 요구한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고 들어가는가? 과거에 그들의 마음을 한 영혼 한 영혼에 고정시켜 “주여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하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그런 경우는 드물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죄인들의 위험을 인식하듯이 행동하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들이 아는 위험 속에 있는 자들을 취하여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가? - 교회증언 6권, 411-413.

## 주의가 요구됨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딤펴전 3:2].

[딤펴전 1:5-7 인용됨.] 우리의 모든 목사들이 이 말씀에 유의하여 합당한 고려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분께서 받으실 자들을 선정해 달라는 많은 기도 없이는 사람들에게 빨리 직분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영감 받은 사도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 (딤펴전 5:22)라고 했다. 우리 교회들 중 어떤 곳은 조직하고 장로들을 안수하는 일이 너무 일렀다. 성경의 원칙들이 등한시되었기 때문에 쓰라린 고통이 교회에 야기되었다. 지도자들을 택하는 일에 너무 크게 서두름으로 책임이 중한 사업에 전혀 합당치 못한 사람들, 그들의 역량대로 하나님의 사업에 봉사하기 전에 회개하고, 고상해지고, 숭고해지고, 세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안수를 받는 것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복음의 그물은 좋은 것과 못된 것 모두를 끌어올린다. 그러나 품성이 계발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사람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아는 데는 시간이 걸려야 한다. - 교회증언 5권, 617, 618.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로 공언한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느 다른 백성들보다 더 큰 빛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표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품성의 완성과 더 열렬한 헌신을 나타내야 한다. - 교회증언 5권, 619.

사도 당시에 하나님의 목사들은 하나님을 위한 대변자의 거룩하고 엄숙한 자리에 어떤 사람을 택하거나 받아들일 때, 감히 자신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판단이 용납하는 사람들을 고른 다음,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워서 그분의 대표자로서 그들을 내보내는 것을 그분께서 인정하시는지를 살폈다. 오늘날에도 이와같이 해야 한다.

많은 곳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데 서둘러 교회의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목사들은 어떤 관심사에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는 그것을 신중하게 다룰 수 있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대표하는 사업에 불명예보다는 영예를 가져 올 능력 있는 사람을 크게 필요로 한다. - 교회증언 4권, 406, 407.

## 적격성을 잃어버린 한 경우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대상 5:1].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이와 같이 아버지(야곱)는 장자로서 르우벤의 지위가 어떠했어야 할 것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에텔에서 범한 그의 무서운 죄(창 35:21, 22)가 그로 하여금 가독 상속권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게 만들었다. 야곱은 계속하였다. “물론 고통을 겪었으나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창 49:3, 4) 제사장 직분은 레위에게, 나라와 메시아의 허락은 유다에게, 기업의 두 몫은 요셉에게 배당되었다. - 부조와 선지자, 235.

우리는 품행이 방정하고 깨끗한 생애를 보내기 위하여 깊이 주의해야 하며, 타락한 이 시대의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쓸데없는 농담을 하거나 기혼, 미혼을 물론하고 여인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다. 그들은 위엄을 보존하고 자중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사교적이며 친절하고 예절 있게 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저속하고 저열한 교제는 피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므로, 이것을 범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 하나하나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격을 높이며 또한 우리를 우아하고 고상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일에 주의하지 아니함은 죄가 된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도처에 타락한 사람들과, 가족 제단이 깨어지고 파괴된 가정들을 볼 수 있다. 원칙은 버린 바 되며, 도덕의 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온 땅은 급속도로 소돔화하고 있다. 노아 때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하고 또 소돔을 불로 전멸케 한 죄악은 날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지구가 불로 깨끗이 소멸될 마지막 날에 점점 가까이 이르고 있는 것이다. - 복음 사역자, 125, 126.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귀한 양떼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이전에 소위 말하는 완전론이나 강신술 등의 오류에 빠짐으로 인해 마음과 판단력이 약해진 자들과 이러한 오류 가운데 빠져 있는 동안 자신들에게 불명예를 끼치고 진리의 사업에 욕을 돌린 자들에게 그 책임을 맡기지 않으실 것이다. - 초기문집, 101.

## 품성의 쟁점

“그러므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딤후 3:2].

우리는 잘 정돈되고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 가정이 세상에 그리스도교를 추천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는가? 세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 설교와 대화 1권, 29.

세상에 소개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능력의 증거는 질서 정연하고 잘 훈련된 가정이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니 대개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에 끼치는 실제적인 힘에 대한 산 증거이기 때문이다. - 재림신도의 가정, 32.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마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감화력과 미덕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식구들이 친절하고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가정은 선을 위하여 위대한 감화력을 끼치나니 다른 가정들도 그러한 가정이 도달한 결과를 주목하고 그 고정된 모본을 따름으로서 순차로 저들의 가정을 악한 감화에 대하여 경계하게 된다. 하늘천사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으로 지배하는 가정들을 방문한다. 이러한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 밑에서 시달리고 고달픈 순례의 생애를 새롭게 하는 장소가 된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게 된다. 정당한 습관이 형성된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잘 인식하게 된다. 사랑으로서 행하며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종교는 온 가정을 좌우하는 기가 된다. 세상에 제시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능력의 증거는 잘 정돈되고 잘 훈련된 가정이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리를 더 잘 권장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심령에 역사하는 실제적인 능력의 산 증거이기 때문이다. - 오늘의 나의 생애, 33.

그대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를 알게 될 것인데 이는 행동들이 그들의 말이나 공언보다 더 크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동을 특징짓는 정신이 인간성을 드러내며 사업은 그가 행하는 특성에 일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위대한 경륜을 통해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서게 될 자를 시험과 시련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 각 분야에서 개혁자들로서 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게 때문이다. - 원고모음 1권, 92.

4월 17일 (안)

### 교만을 경계함

“그러므로 감독은... 근신하며” [딤후 3:2].

유능하게 말할 수 있는 목사에게 아침하고 칭송을 돌리 고자 준비된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 젊은 목사는 칭찬을 받고 고임을 받아 해를 당할 수가 있다. 동시에 그는 그분의 대변인이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필수적인 것에는 부족할지도 모른다. 그대는 이제 겨우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갔을 뿐이다. 그대의 사업에 적합하게 되는 것은 일생의 사업이며, 이미 형성된 습관과 경향과 유전적인 성향에 매일같이, 열심히 백병전을 벌여야 하는 투쟁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열렬하고 신실하게 자아를 지키고 통제하는 노력을 요구하며, 예수님을 높이고 자아를 시야에서 몰아내는 일도 요구한다. 그대는 그대의 품성의 약한 점들을 주의하고, 잘못된 경향을 자제하고,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은 고상한 능력들을 강화하고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 세상은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을 결코 알지 못하며, 영혼의 내적인 비통함과, 자아 혐오, 자아를 조절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노력의 결과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대의 매일의 생애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대는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고 알려진 편지가 될 것이며, 고상하게 개발된 균형진 품성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배우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너희 마음이 겸을 얻으리”라[마 11:29]. 그분은 지식을 달라고 그분께 오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다. 사도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부드러운 것만 듣기 위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딤후 4:3)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 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마 7:15, 16) 여기에 묘사된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으며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심령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안일을 사랑하고, 그들의 거룩지 못한 심령의 충동을 따른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과 모순되며,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이 결핍되어 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거룩한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들은 이 모든 것과는 반대되어야 하며, 그들의 생애와 실제적인 경건으로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 사이에 존재하는 구별된 점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한다. -교회증언 4권, 376, 377.

4월 18일 (일)

### 절제를 배양함

“그러므로 감독은... 절제하며” [딤후 3:2].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그들의 첫 공과들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이들이 진리의 교사 자격을 갖고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회심시키는 능력이 목사들의 심령에 임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다른 직업을 구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백성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일의 엄숙성을 인식한다면, 그들은 침착하고 사려 깊은 인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교역자가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참된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며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들은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있는 자로서 자기 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업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구할 것이다.

예수님 없이 목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만일 그가 번덕스럽고, 농담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지워 주신 의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고 말씀하신다.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아침하는 말들, 시시한 일화들, 웃기기 위해 하는 말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정죄 당하고 있으며, 신성한 강단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목사들이 회심하지 않는 한, 교회는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인간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속에 붙여넣을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정욕을 바로잡고 정복할 수 있으며, 애정을 성결하게 할 수 있다. 봉사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며,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야 한다.

목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경건 속에 희극을 섞는 것인가?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장소로는 극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속에 계신다면, 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진리가 영혼의 지성소 안에 들어온다면, 그대는 들뜬 사람이나, 심술궂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해 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귀한 교훈들을 가르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142, 143.

## 열정적인 영적 생애

“그러므로 감독은... 아담하며” [딤후전 3:2].

주께서는 당신의 목사들 앞에 거룩한 표준을 두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양무리의 목자들이 되고 선량한 품행의 실례들이 되어 목사직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교훈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저열하고 통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져서 선천적이고 개심하지 않은 마음의 욕망을 따라 풀지워질 것이다. 목사들은 그들의 신성한 직분에 그들 자신의 결합이 있는 정신과 결합있는 품성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이는 범사에 그들이 말씀을 이행하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함을 받는 자로 발견될 것이다. - 리뷰 앤드 해럴드, 1894.11.20.

목회에는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여지가 없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목회 자질을 온전히 입증해야 한다. 그들은 게으름쟁이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로서 충성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절름발이 희생이나, 연구나 기도가 들어가지 않은 제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이 사업의 신성성과 그 소명의 위대한 책임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 속에서 살아야 한다. 주님은 강한 영적 생명의 소유자들을 필요로 하신다. 모든 일꾼들은 위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길을 믿음과 소망으로 걸으며 전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젊고 헌신한 일꾼 속에 거하신다. 이 일꾼은 살았고, 열렬하며, 능력이 있다. 그는 다함이 없는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산다. - 교회증언 6권, 412.

성취해야 할 사업은 매 단계마다 자아희생의 정신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 올바른 정신과 끈기있는 태도를 나타내는 일꾼은 그의 일에 적응성을 입증하고 있다... 영혼들이 저희 죄로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각 일꾼은 그가 있는 모든 곳에 현대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더 큰 열성으로 각성해야 한다. 그는 결코 한 영혼이 참으로 개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천사들이 기쁜 함성으로 찬미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모두가 그 일에 성공하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한번은 랭커셔에서 이웃에 사는 신자들이 저희 목사의 성공하는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한 늙은 부인이 듣고 있었다. 저들은 그 목사가 재능이 많은 까닭이라고도 하고, 설교를 잘하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의 행실이 좋기 때문이라고도 하며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였다. 그 때에, 그 늙은 부인이 나서서 말하기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 드리지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매우 친한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 리뷰 앤드 해럴드, 1909.9.2.

## 나그네를 대접함

“그러므로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딤후전 3:2].

너무 사귀성이 적고, 가족 식탁에 두세 사람의 자리를 더 만드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아니면 거창하게 차린다. 어떤 이들은 “너무 일이 많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만일 “특별한 준비를 못했지만 우리가 차린 식탁으로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기대하지 않던 손님이 애써서 준비하여 맞은 손님보다 영접해 준 사실에 대하여 훨씬 더 감사할 것이다.

주님께 속한 시간을 다 잡아먹는 손님 접대 준비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남들에게도 잘못하는 것이다. 잘 차린 접대를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이들이 자기 가족들에게 필요한 관심을 박탈하며, 그들의 모본은 남들로 같은 길을 따르도록 인도한다.

손님들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멋지게 하고자 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걱정과 부담이 생긴다. 여러 종류의 음식을 만들고자 주부는 과로하게 되며, 많은 종류의 음식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손님들은 과식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과로로, 다른 한편으로는 과식으로 인하여 고통과 질병을 얻게 된다. 이러한 거창한 잔치는 부담이며 손해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보살핌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 교회증언 6권, 343.

목회자들이여, 그대들의 일을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국한시키지 말라. 실용적인 일을 하라. 병든 자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힘쓰라. 이것이 참된 목회이다. - 노트 북 리플렛 1권, 140.

남의 유익을 위해 살고 남을 복되게 하며 남을 대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어떤 불편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아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가정과 사회에 유익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이들은 이 필요한 일을 회피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책임을 져야 한다. 대개 형제들이 대접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동일하게 분담하지 않으므로, 자발적이며 기꺼이 남을 돕는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는 몇몇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교회는 그 교회 목사들이 이런 일에서 과외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 교회증언 2권, 645.



## 가르치는 일

“그러므로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딤후전 3:2].

일선에 나서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초보자에 불과하다. 그들은 다른 면에도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 그들은 서둘러 성경을 읽고, 단어도 틀리게 발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꺼번에 섞어서 뒤죽박죽이 되게 한다. 올바른 방법으로 진리를 나타내는 데 적합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의무에 대해 당황해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위치는 배우는 자이지 가르치는 자가 아니다. 목회를 준비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은 우리 대학에 들어감으로 큰 유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인정받을 만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점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이런 젊은이에게 발성 기관을 상하지 않고 말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은 역시 주의리를 기울여야 한다.

일선에 나서는 어떤 청년들은 그들 자신을 교육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 정확하게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은 배워야 하며, 그들이 공중 앞에 서려고 하기 전에 가르치는 데 적합해야 한다...

목사들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에 대하여 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특별히 조사를 받아야 하며, 그래서 그들이 예언들이나 실제적인 주제에 관해 연관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들이 성경 주제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없다면, 그들은 아직 배우는 자와,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신실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그것에 정통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일터로 나가기 전에 주의 깊이 그리고 기도하면서 고려되어야 한다. - *교회에 보내는 증언* 4권, 405-407.

설교는 적게 하고 가르치기는 많이 하여야 할 것이다. 곧,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공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더욱 힘쓸 것이다. 목사는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며, 전도 사업에 뜻을 두는 자의 사상과 행동을 가르치는 일에 뛰어난 자가 되어야 한다. - *복음 사역자*, 76.

## 절제에 모본이 됨

“감독은...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딤후전 1:7, 8].

복음 목사들은 가장 엄숙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들에 상처를 주는 것을 먹기를 거절하면서 식욕의 면에 그들 자신을 부인하도록 격려함을 받아야 한다. 신체적 건강은 그들의 특권이며 이는 그들이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은 그의 건강을 해칠 이기적인 습관에 방종할 자유를 그에게 주지 않는다. 목사들은 교인들 앞에서 절제의 모본을 보여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들을 아주 최선의 상태로 지켜야 하며 이는 그들이 선을 행함에 최대의 역량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원고모음* 6권, 37.

우리는 건강개혁의 빛을 갖고 있으며 주께서는 우리가 그 빛대로 살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건강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행동들을 좌절시키기 위해 매일 이적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목사들은 그들의 몸에게 지적 능력을 증가시켜야 하며 지적능력들을 어떻게 취급할지를 요구하신다. - *원고모음* 20권, 248.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진리를 가르치는 교역자들에게 식욕을 정복해야 할 엄숙한 의무가 지워져 있다. 식욕과 정욕을 지배했다면 그들의 유용성은 훨씬 커졌을 것이며, 신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을 병행했을 것 같으면, 그들의 정신적 · 도덕적 능력은 보다 강력해졌을 것이다. 엄격히 통제된 습관과 정신적 신체적 노동을 병행시킴으로,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일을 성취하고 마음의 명철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길을 따랐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말은 더욱 유창하고, 종교적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청중들에게 끼친 감화는 더욱 깊었을 것이다. - *교회증언* 3권, 486, 487.

영혼들의 운명은 그들이 취하는 행동과 그들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먹는 일에 있어서 뿐 아니라 노동에 있어서까지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그들의 힘이 약화되지 않고 그들의 거룩한 부르심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요긴하겠는가. - *교회증언* 1권, 471.

## 온화하고 침착함

“감독은...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딤후 1:7].

만일 목사가 그의 회중들 앞에서 반대자의 얼굴에 불신의 웃음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본다면, 그를 보고 있지 않는 자처럼 여가라. 어떤 이가 웃고 조소할 정도로 예의바르지 못하다면, 목사는 목소리로나 태도로 동일한 정신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라. 그대는 결코 그러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라. 너무 자주 날카로운 말을 펜으로 흘리며, 오류를 옹호하는 이들의 진술을 반복함으로 우리 형제들이 가끔 오류를 통용시키고 있다. 이것은 잘못이다. 그대의 펜으로 진보된 진리를 기록하라. 성령께서는 날카롭고 비평적인 사람이 되기를 좋아하시는 이들과 더불어 일하지 않으신다. 토론자들과 만날 때 그러한 정신을 품어 왔으며, 어떤 이들은 버릇처럼 싸움에 익숙해지기까지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 수치를 당하신다. 날카로운 창살을 뒤로 걷어 치워라. 사단의 학교에서 그의 전쟁술을 익히지 말라. 성령께서는 비난의 말을 하도록 고무시키지 않으신다. 환난의 때가 우리 앞에 있으며, 진리의 빛을 갖지 못했던 모든 정직한 영혼들이 그 때에 그리스도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매일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존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이다. -특별증언 A-4-23.

조용히 묵상하는 목사, 사색적이며 헌신적인 목사,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목사, 아울러 활동과 영성을 겸비한 목사가 이 시대에 부족하다. 사색과 헌신, 활동과 열성, 이 두 가지 자질들은 함께 가야 한다.

토론적인 목사는 우리들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왜냐하면 사업이 힘들게 될 때 저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들을 거의 흥미를 가질 수 없는 곳에 처하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용기와 열성과 진정한 관심의 부족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마치 주정뱅이가 술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처럼 토론과 반대가 야기시키는 활기와 활력을 지나치게 의존한다. 이러한 목사들은 다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증언 3권, 217.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목사들이 종교 개혁의 지도자들과 대조되어 나에게 나타났다. 특별히 루터의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생애가 우리 전도자들 중 어떤 사람들의 생애와 비교되어 나타났다. 그는 그의 용기와 침착하고 확고한 태도와 자제를 통하여 진리에 대한 불굴의 사랑을 입증했다. 그는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서 있는 동안 시련과 희생을 당하고, 때로는 가장 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사냥물이 된 들짐승처럼 쫓겨 다녔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모든 것을 참았다. -교회증언 1권, 375.

## 급료가 우선이 아님

“그러므로 감독은...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딤후전 3:2, 3].

[인기있는 교회들의] 목사들이 정의를 수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밀비재하다... 그가 솔직히 말하다간 회중의 비유를 거스려서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의 월급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치료봉사, 340.

[우리 목사들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목사는 세상적인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가 영적인 사물에 최대의 힘을 바쳐 일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사는 자신과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부족하지 않는 급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목사는 교회를 완전히 돌볼 수 없기까지 자기 가족 때문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그가 행하여야 할 특별한 의무인 까닭이다. -복음 사역자, 271.

목회자가 이곳 저곳으로 뛰어 다니고, 밤늦게까지 직원회와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는 사업 분야의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것은 그에게 피로와 낙담을 가져온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풍성한 생명의 떡의 영양분을 얻기 위하여 휴식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생수의 강에서 신선한 위로의 물을 마실 시간을 가져야 한다. -교회증언 7권, 250.

어떤 사람도, 비록 그가 특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을지라도, 과대한 봉급을 받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행해지는 일은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근거 위에 놓여져서는 안 된다...

주님의 포도원에서 마음을 다하여 활동하고 그들의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일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봉사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 자들이 아니다. 교만과 자존으로 뿔내고, 매 시간의 활동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활동을 구주의 사업과 비교하고, 그들 스스로를 무익한 중으로 생각한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이 가장 낮은 표준에 이르기 위하여 얼마나 적게 일할 것인가를 연구하지 말고, 그대들이 그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분발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붙들도록 하라. -교회증언 7권, 208, 209.

## 반대자들을 참음

“그러므로 감독은...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딤후전 3:2, 3].

진리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판단력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며 반대를 이기고 성급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괴롭힐 것이며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반대는 최악의 형태로 진리를 대적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모든 종들은 이러한 반대를 진리의 빛을 가지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대처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흔히 반대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그들과 같은 성질을 부리도록 하기 위하여 성난 태도로 맞서곤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계명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중동하여 그와 같은 정신을 나타내게 하고는 그들이 각박하고 거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것이다. 나는 우리들이 반대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을 보았다. 우리는 오래 참음과 명철함과 겸손으로 반대에 대응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땅히 받을 보응을 받게 되도록 해야 한다.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그들을 무시해 버리거나 쫓아버리지 말고 반대자의 기를 꺾어 놓고 가혹한 정신으로 그를 대하는 대신에 그 반대에 그만한 가치를 부여해 준 다음 진리의 빛과 능력을 제시해줌으로 반대자의 입을 막고 그들이 오류를 시정하도록 하라. 그렇게 할 때 선한 감화를 끼치게 될 것이다. -초기문집, 102.

오류에 빠진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대하라. 그대가 만나서 일하는 사람이 진리를 당장에 수용하지 않으면, 그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거나 나무라지 말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분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는 불신과 반대를 만날 각오를 해야 한다. 진리는 항상 이러한 요소들을 만나게 되어 있다. 설사 가장 심한 반대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반대자를 정죄하지 말라. 그들이 바울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내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나타내야 한다.

인기 없는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시련과 혹심한 투쟁을 감내 해야 한다고 생각지 말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가 그대를 위해 당하신 것을 생각하고 침묵하라. 비록 매를 맞고 거짓 고소를 당하더라도 불평하지 말라. 싫은 소리를 내지 말고, 비난이나 불평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게 하라. -초기문집, 102.

## 진전한 가족 관리

“그러므로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딤후전 3:2, 4, 5].

직분에 천거된 사람의 가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들은 순종하는 자들인가? 그는 떳떳하게 자기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가? 그의 자녀들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아버지의 영향력을 존중할 것인가? 만일 그가 자기의 가정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가정에서 기지와 지혜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 동일한 결함이 교회 안에서도 되풀이 될 것이고, 똑같이 성화되지 못한 관리가 그 곳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결론지어도 좋다. 사람에게 직분을 준 후에 비판하는 것보다 사전에 하는 것이 훨씬 낮고 잘못된 조처의 결과를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기 보다 결정적인 단계를 밟기 전에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교회증언 5권, 618.

만일 사람이 그 자신의 가정 교회의 관리에 지혜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는 어떻게 밖에 있는 더 큰 교회의 관리에 지혜를 보여줄 수 있겠는가? 만일 그가 그 자신의 자녀들을 다스릴 수 없다면 그는 그토록 많은 것을 의미하는 책임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지혜로운 판별력은 이 문제에 있어서 보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의 자녀들의 교육과 훈련을 게을리 하는 목사위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신성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그는 교인들 앞에서 어떤 경우든 그의 가정 관리에 결함있는 모본을 두어서는 안 된다. -월고모음 5권, 449, 450.

어떤 때에는 목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등한시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와 같이 있는 때가 많지 못하여 자연스럽게 자기 멋대로 놀고 즐기 때문이다. 여러 아들들이 있는 목사는 결코 그들을 전적으로 어머니의 손에만 맡기지 말 것이다. 이것은 어머니에게 너무 과중한 짐이 된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로 악한 동무들과 사귀지 못하게 하고 유용한 일을 하도록 돌보아야 한다. 혹은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제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 남편이 이런 것을 보거든, 친히 더욱 짐을 많이 지고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전력할 것이다. -복음사역자, 206.

## 겸손하고 훌륭하고 모범적임

“그러므로 감독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딤펴전 3:2, 6, 7].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책임을 그들에게 지우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시험을 받고 자격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들이 모든 짐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되며, 즉시 책임 있는 위치에 오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격려를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 그들이 봉사사업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그들을 격려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전적으로 맡는 것은 최선의 길이 아닐 것이다. 먼저 그들을 경험과 지혜가 있는 사람과 관련을 지워 활동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그들이 구원하는 감화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즉시 깨닫게 될 것이다. - *교회증언* 1권, 473, 474.

그들 자신이 사업에서 수고하려고 하는 자들의 경우 철저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 사도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딤펴전 5:22]고 경고한다. 만일 생애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면 수고는 무가치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속에 거하신다면 모든 잘못은 올바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은 그것이 잘 정돈된 생애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목회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이 많으며 그들의 감화력은 교회들에 나타나게 되고 그들이 거절을 당하면 그들은 개인적인 잘못으로서 면직처분을 받게 된다. 그들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 속에 안 계신다...

우리는 자원하여 새로운 일터에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 힘든 수고를 할 자들을 원한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89.10.8.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 사업의 신성성을 옳게 분별하고, 다가올 고통과 핍박을 두려워 않으며, 즐겨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임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사도는 자신이 먼저 그의 품성과 과거의 생애에 관하여 충분히 확인함으로써 경험없는 청년 디모데를 복음 사업을 위하여 훈련시키는 책임을 감히 맡으려 하지 아니하였다. - *사도행적*, 203.

## 하나님의 청지기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딤펴전 1:7].

목사들이 거듭나기 전의 그들의 행동과 품성의 면에서 내 앞에 제시되었는데 가장 거칠고 거의 교정할 수 없으며 가장 완고하고 가장 고집센 것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성격의 특성들은 하나님의 사업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말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에서 신뢰할 중요한 직책들을 채우기 위하여 요구된다. 품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누룩은 인간 마음 속에서 역사해야 하며 각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까지 그들은 거룩하게 되어야 하며 그럴 때에 가장 귀중한 자들이 될 것이다. - *원고모음* 9권, 61.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이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라라” (겔 33:7, 9)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교회의 수호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임명된 사람들의 엄숙한 책임을 선언한다. 그들은 파수꾼으로서 시온의 성벽 위에 서서 원수의 접근을 보고 경고의 말을 발하여야 한다. 영혼들은 시험에 빠질 위험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목사들이 그들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한 멸망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의 영적 감각이 위험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마비되어 경고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백성들이 멸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의 피를 그들의 손에서 요구하실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생애하고 당신의 성령의 감화에 매우 민감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남녀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안전한 장소를 지적하도록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시온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들의 특권이다. 파수꾼들은 범죄의 분명한 결과에 대하여 충실하게 경고해야 하며 교회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어느 때라도 그들은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다. 그들의 일은 신체의 모든 기능의 사용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들의 음성은 나팔의 음조가 되어 높이 올라가야 하며 결코 동요하거나 불확실한 소리를 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일하는 것은 샅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깨닫고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사도행적*, 361.

## 영혼의 번민 속에서 기도함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출 2:17, 18].

우리 목사들은 품성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그들의 사업이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지 않는다면, 홀로 자신의 불완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 그들이야말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품성의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아주 열렬하게 추구하는 모든 목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한 목사는 기도할 것이다. 그는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 것이며, 영혼의 번민 속에서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르짖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백성 앞에 설 수 없을 것인데, 온 하늘은 그를 주목하고 있으며, 천사는 그의 말과 행동과 정신을 기록하고 있다.

오,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 하나님의 사자들이 멸망해 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부담을 느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단지 말만 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영혼에 활기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것이며,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활활 타오를 것이다. 그들은 연약할 때에 강해질 것이다. 이는 그들이 말씀의 실천자가 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 예수께서는 그들의 교사가 되실 것이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힘차고 능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것이다.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존중하며 신뢰하는 데 정비례하여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여김을 받는다. 그것에 정비례하여 그는 하나님을 통하여 강해진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이들 편에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능력, 하나님과 진리를 아는 지식 안에서 끊임 없이 자라나는 일이 필요하다. 만일 목사들이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으로부터 길어 온 말씀을 발한다면, 만일 그들이 자신이 섬기는 분이신 그리스도의 협력을 믿고 기대한다면, 만일 그들이 자아를 숨기고 예수, 세상의 구속주를 높인다면, 그의 말들은 청중의 심금을 울릴 것이며, 그의 사역은 거룩한 신임장을 지니게 될 것이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143, 144.

## 정결케 된 목회직의 마지막 사업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말 3:3].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사업에 질서를 가지실 것이다. 목회직에 불충실한 자들이 있으나 이것은 위대한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목회직을 주님의 자산들을 감소시키게 하지는 못한다. 행하여진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만큼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목회직을 비난하고 헐뜯는 자들은 현명한 자들이 아니다.

주님의 율법보다 어떤 다른 법에 순종하거나 복음 사업에 종사하는 것보다 다른 일들을 수행하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모욕하고 있다. 경고에 경고가 주어져 왔다. 세상에 주어질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통해 호소에 호소가 주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애처로운 심령으로 사람들의 마음 문에 서서서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두드리신다. 남녀들은 마지막 시험을 받게 된다. 가장 완악한 죄인들도 자비의 기별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 혹은 표를 받을 자들을 입증하실 것이다. -크레스 모음집, 153.

나는 우리 목사들에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사업이 그대들 자신의 개인적인 영혼들에게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대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그대들의 첫 번째 사상이 되도록 하라. 친절과 용기로 충만하게 되는 것에 모본이 되라. 오만한 정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마음을 그리스도의 온화함과 사랑과 동정으로 충만하게 하라. 진리를 믿음으로 매일 영혼의 거룩함을 이루라. 경건의 비밀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임을 모두가 인식토록 하라.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선천적인 악한 습관과 욕망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 예수님을 올바르게 대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완전한 믿음을 행사하므로 신성을 붙들 수 있도록 인성을 취하셨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품성 계발을 위한 우리의 모본이시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강건함을 통하여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 -리뷰 앤드 해럴드, 1909.2.18.

## 어미 말 가려내기



중국 당나라 때의 일이었어요.  
당나라의 임금을 모시던 사신이 말 두 마리를 끌고 고구려를 찾았어요.  
사신은 고구려를 알아보며 문제를 냈답니다.  
“이 말은 크기와 생김새가 같은데 어미와 새끼를 가려내 보라.”  
고구려 조정은 매일 회의를 했으나 묘안을 찾지 못했어요.  
박정승이 이 문제로 고민하느라 얼굴 빛이 어두웠어요.  
그의 나이 많으신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왜 그러는지 물었어요.  
아들은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매우 간단한 문제이니 염려말라고 아들에게 대답하셨어요.  
“그게 무슨 걱정거리냐? 나처럼 나이먹은 부모면 누구나 안다. 말을 하루 정도 굶긴 후 여물을 갖다 주어라.

그 때 먼저 먹는 놈이 새끼 말이다.  
원래 어미는 새끼를 배불리 먹고 나중에 먹는다.”

아들은 그 방법으로 어미와 새끼를 가려냈답니다.  
그러자 고구려를 업신여겼던 당나라 사신은 고구려인의 뛰어난 지혜에 감탄하며 당나라로 돌아갔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우리나라에도 부모님을 지계에 짊어지고 산 속에 두고 오는 고려장 풍습이 없어졌답니다.

성경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욥12:12).  
하나님께서서는 지혜가 많으신 부모님과 웃어른을 존경하기를 바라신답니다. ◇